

한국십진분류표 200: 종교

2024년 《오늘의 도서관》에서는 책의 이름표이자 주소인
한국십진분류표에 맞춰 각 분야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달의 주제는 한국십진분류표 200, '종교'입니다.

불교, 기독교, 도교, 천도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의
종교 관련 도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데이지(DAISY,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열다

도서관과 오늘 십진분류의 탄생과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종교	04
주목! 이 도서 종교 분야 1위 도서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I May Be Wrong)》	08
도서관 산책 종교와 도서관: 그 동행과 여정	10

오늘의
도서관

발행일 2024년 3월 29일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167-06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편집위원 김성훈, 배명희, 손효림, 이은경, 한숙희
편집 예은하 todayslibrary@korea.kr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6323
팩스 02-590-6329
누리집 www.nl.go.kr
제호 강병인
디자인·제작 P31 02-3141-2760

외부 필자에 의해 제공된 콘텐츠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도서관 4월호 카드뉴스를 SNS에서 만나보세요.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nationallibraryofkorea>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ational.library.of.korea>
- 블로그 <https://blog.naver.com/dibrary1004>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



표지 이야기 / 일러스트 **민지홍**
《오늘의 도서관》 4월호 주제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여러 종교의 역사, 교리 등을 책을 통해 알아갑니다. 깊이 공부해야 하는 학문이자 그 과정에서 큰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기도의 의미는 다르지만 신에 대한 신뢰는 비슷하기에 도서관 서가 앞에서 손을 모아 염원하는 모습으로 ‘종교’라는 주제를 표현했습니다.

도서관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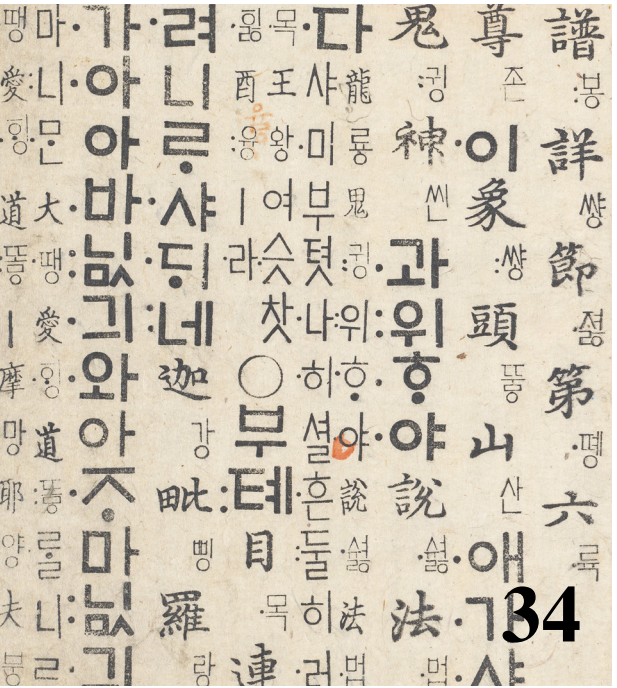
사서 큐레이션 봄 향기를 머금은 4월의 전시	14
오늘의 만남 모두가 창작자가 될 시대를 준비합니다 작곡가 김형석	18
꿈을 이루는 도서관 독서 취향에 맞는 책을 추천해 드려요 ‘서울특별시교육청송파도서관’	22
보물을 찾아서 프랑스 최초의 공공도서관 마자랭 도서관(Bibliothèque Mazarine)과 특별한 컬렉션	26
도서관 트렌드 다문화 시대, 도서관의 역할	30

서재를 걷다

문헌의 가치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 《석보상절(釋譜詳節)》	34
문학상 읽기 얀 마텔 《파이 이야기》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다	38
나를 바꾸는 독서 제임스 클리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를 알아야 습관을 만든다	42
숫자로 보는 테마 랭킹 제2회 도서관의 날을 축하합니다 ‘최근 3년간 도서관 관련 인기 도서 분석’	46
똑똑한 독서 생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지혜, 종교와 신화 속으로	48

함께 나누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2
국내외 도서관 소식	54
한 장의 감성	59



《오늘의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 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www.kogrl.or.kr

십진분류의 탄생과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종교

한국십진분류법과 듀이십진분류법은 유사한 점이 많다. 기호법, 분류표, 항목 전개에서는 유사하지만 ‘종교(200)’ 분야만은 가장 많은 차이점이 나타난다. 이유는 종교 분야가 십진분류의 탄생 배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듀이십진분류를 기반으로 한국십진분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며, 십진분류는 하나의 유기체로 존재하는 도서관과 그 명맥을 함께해 왔다.

글 여지숙(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000 종류	100 철학	200 종교	300 사회과학	400 자연과학	500 기술과학	600 예술	700 언어	800 문학	900 역사
-----------	-----------	-----------	-------------	-------------	-------------	-----------	-----------	-----------	-----------

한국십진분류법(KDC)의 종교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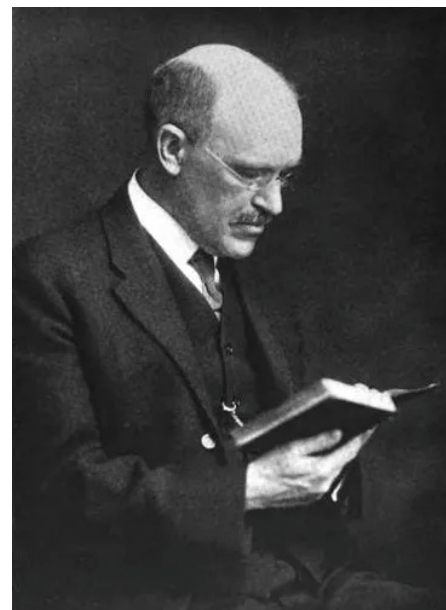
도서관의 자료 주제를 열 가지로 구분하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오늘의 도서관’을 살펴본다. 세 번째 분류인 종교에는 불교, 기독교, 도교, 천주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이 해당한다.

기독교 위주로 편찬된 십진분류 DDC

우리나라 도서관에서는 듀이십진분류법(Dewey Decimal Classification, DDC)과 한국십진분류법(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DC)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종교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바로 DDC의 종교 분야를 분석했을 때의 일이다. DDC의 200(종교)은 십진분류의 특성에 따라 다시 200부터 290까지 10개의 분류 항목인 강목(divisions)으로 세분되며, 이 10개는 계속 10개씩 세분되어 전개된다. 그런데 200의 10개 강목 중 220에서 280까지 7개가 기독교에 배정되어 있다. 기독교 이외의 종교는 290인 기타 종교(Other religions)로 분류된다. DDC의 200(종교)이 기독교 위주로 편성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다.

필자는 종교가 없어 연구 당시 특정 분야로 편향된 DDC의 종교적 특징은 더욱 이상적이지 않게 느껴졌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DDC의 방법으로 종교 관련 정보 자료를 분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였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문헌 분류 관련 자료에서도 종교류의 기독교 편향성을 언급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DDC가 기독교에 치중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DDC의 창시자 멜빌 듀이(Melvil Dewey)는 그가 근무하던 미국 애머스트대학 도서관에서 사용하기 위해 DDC를 1876년에 편찬했다. 애머스트대학은 1821년 ‘기독교 사역을 위한 경건하고 재능이 있는 가난한 청년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되었다.¹ 이렇게 본다면 DDC 200 종교류가 기독교를 중심으로 편성된 것은 당연하게 보인다. 듀이는 단지 자신이 DDC를 편찬한 목적에 적합하게 200 종교류의 분류 항목들을 편성한 것이다.



듀이십진분류법을 만든 멜빌 듀이(Melvil Dewey)



미국 애머스트대학 ©Shutterstock

¹ “Firsts” at Amherst College(<https://www.amherst.edu/about/history/firsts>)



편찬 목적에 충실한 십진분류 KDC

그렇다면 한국십진분류법(KDC)은 특정 종교에 편향되지 않고 골고루 분류할 수 있게 되어 있을까? KDC의 종교는 DDC와 동일하게 200이며, 200을 다시 10개로 세분한 강목인 200부터 290 중 기독교는 230에 있다. 불교는 220, 도교는 240, 천도교는 250, 힌두교와 브라만교는 270, 이슬람교는 280에 있으며, 290은 기타 종교를 분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10은 비교종교, 260은 어떤 종교에도 배정되지 않고 비어 있다) 10개의 강목을 다양한 종교에 고루 배정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KDC 200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KDC 초판의 서(序)에서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상당수의 도서관이 이 듀이의 십진분류법을 이입·차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아무리 그 내용이 거세 남김이 없이 일체를 포괄해 있다 할지라도 그 주제의 배열 순위에 있어서나, 또한 지리·언어·종교 등 그 세부 구분에 있어 소전(所詮) 우리와 우리 아닌 것, 나아가서는 동양과 서양의 거리에서 오는 엄청난 균형의 상실을 우리로서 병으로 삼지 않을 수 없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듀이의 십진분류법이 갖는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분류 기호의 배정과 순위의 차서에 있어,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경우에 생길 부득이한 모순을 최소한으로 시정해서, 하나의 표준을 만들어 보고자 한 것이 곧 이 한국십진분류법을 낳게 한 동기다.²

KDC의 편찬 목적이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십진분류를 만들고자 한 것이기에 이것은 KDC의 200(종교)에도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편향적으로 느껴지는 DDC도, 우리나라 도서관을 위해 편찬한 KDC도 그 편찬 목적에 맞는 십진분류인 것이다.

²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十進分類法》(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4, iii.)

생명력을 가지고 진화하는 십진분류

종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듀이십진분류와 한국십진분류가 가진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일 것이다. 1964년 KDC 초판 발행 이후 1996년 간행된 KDC 제4판에서는 류, 강, 목의 분류 기준에서 변경은 가능한 피하되 필요한 세목은 과감히 수정하여 전개하는 개정 방침을 따랐다. 그중 종교에서는 개정 방침에 따라 KDC 제3판의 196개 항목에 121개 항목을 추가해 317개 항목을 배정했으며 그 후 2013년 제6판을 발행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와 노력은 모두 DDC와 다르게 KDC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DDC 역시 개정을 거듭해 왔다. 1876년 초판 발행 후 1996년에는 21판이 발행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십진분류는 도서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하며 개정 및 보완을 통해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대한 도서관학자이자 인도의 문헌정보학자인 시얌리 라맘리타 랑가나단(Shiyali Ramamrita Ranganathan, 1892~1972)은 1931년 도서관 운용의 기본 철학을 담고 있는 도서관학 5법칙(Five Laws of Library Science)을 말했다. 그중 5법칙인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다(A library is a growing organism)”라는 말은 십진분류에도 적용되는 것 같다. 성장하는 유기체인 도서관과 함께 십진분류는 지속적인 사용과 이를 통한 개정이 거듭되어야 앞으로도 그 생명력이 유지될 것이다. 시대가 급격히 변하는 만큼 도서관과 십진분류에도 다양한 변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❶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

- 1법칙** Books are for use(책은 이용하기 위한 것)
- 2법칙** Books are for all(책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
- 3법칙** Every books, its reader(모든 책에게 그 책의 독자를)
- 4법칙** Save the time of the reader(독자의 시간을 절약하라)
- 5법칙** A library is a growing organism(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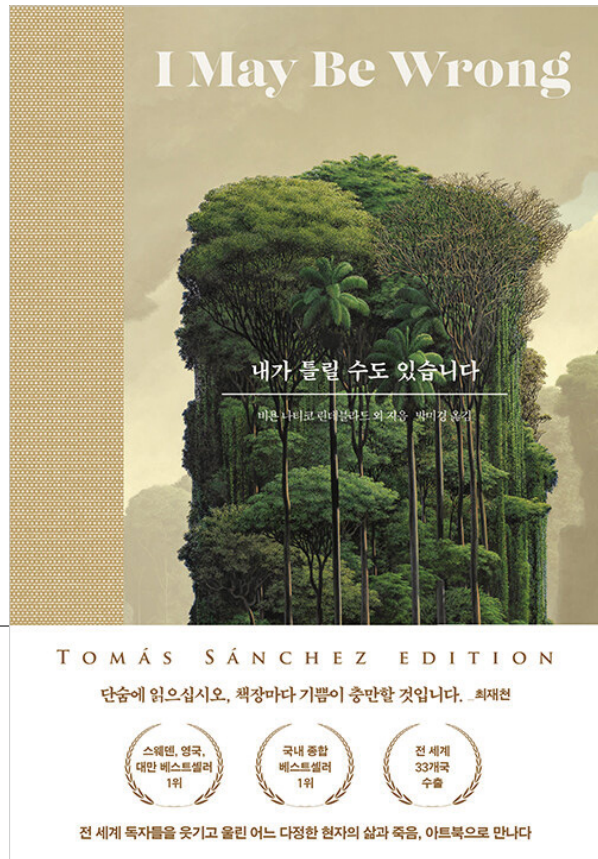
여지숙 •

도서관의 문헌 분류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이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위원으로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과 제5판의 개정 작업에 참여하였다.

종교 분야 1위 도서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I May Be Wrong)》

이 책의 부제는 ‘숲속의 현자가 전하는 마지막 인생 수업’이다. 이러한 부제가 붙은 데에는 저자의 이력과 관련이 있다. 스웨덴 출신인 저자는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한 기업의 최연소 임원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돌연 태국으로 떠나 17년간 수도 생활을 한다. 궁금증이 아니 일 수 없다.

글 김현식(문화평론가) 사진 출판사



<종교 분야 도서 대출 순위>

순위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연도
1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I May Be Wrong)》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 지음 박미경 옮김	다산북스	2022
2	《법륜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	법륜 지음	정토출판	2022
3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에크하르트 톨레 지음 류시화 옮김	연금술사	2013
4	《배움의 발견: 나의 특별한 가족, 교육, 그리고 자유의 이야기》	타라 웨스트오버 지음 김희정 옮김	열린책들	2020
5	《될 일은 된다: 내말하기 실험이 불러온 엄청난 성공과 깨달음》	마이클 A. 싱어 지음 김정은 옮김	정신세계사	2016

* 대출 순위 조사 기간: 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9일(아동서를 제외한 일반 도서 대상)

* 출처: 도서관 정보나루(www.data4library.kr)

스웨덴 출신 파란 눈의 태국 승려

저자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의 고국 스웨덴은 북유럽에 속하는 나라로 한국에서는 ‘북유럽’을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곳으로 생각한다. 북유럽 나라 중에는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웨덴 출신의 저자가 어떤 연유로 17년간 태국에서 수도 생활을 했을까.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저자가 명상의 숲으로 들어간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를 끈다. 한국인이 이상향으로 삼는 북유럽의 사람이 멀리 아시아에 있는 명상의 숲까지 가서 얻어야 할 깨달음이 있었구나 싶다.

이 책을 통해 저자가 얻은 깨달음을 찾는 독자들은 그와 같은 처지에 있을 법하다. 더구나 그는 2018년 루게릭병을 얻었고, 2021년 1월,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떠난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대개 불치병에 걸리면 종교적 신념을 바꾸거나 달라지는 사례도 있는데, 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태국 밀림 숲속 사원에 귀의해 그가 얻은 깨달음은 무엇일까, 더욱 궁금해지는 지점이다. 아마도 그것은 사고(思考)와 근대문명에 대한 성찰일 것이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성찰

저자를 통해 데카르트의 명제에 대해서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다움의 본질은 이성, 즉 생각하는 능력이고, 서구 근대 철학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을 독려했다. 그것이 갖는 폐해를 지적하는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는 계속 수도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반 사람이 궁금해하거나 원하는 깨달음을 전했기에 흥미는 물론 더 공감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가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말은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 믿지는 않게 되었습니다”이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고, 생각하는 존재라는 데카르트의 명제를 거스르는 말이다. 그는 또한 이런 말을 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와 밀접하게 관련된 말이다. 오히려 생각은 나를 존재할 수 없게 한다.

정보의 홍수 속 인간의 역할

젊은 세대들은 ‘TMI(Too Much Information의 준말. 너무 과한 정보라는 뜻)’라는 말을 자주 쓴다. 이 신조어는 흘러넘치는 정보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현대인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쉼 없이 자극할 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다른 외부의 정보에 따른 자극으로 간섭될 때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자기를 지키려는 생각도 많아진다. 이를 통해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이 스스로를 얽매이게 한다. 결국 생각을 많이 할수록 자신은 물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오히려 인간답다. 챗GPT를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그 말들은 그럴듯하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 본질은 물론 진실과 다를 때가 많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더 활개를 칠수록 본질을 판가름할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의미이다. “세상이 원래는 이래야만 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아야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역할은 챗GPT만으로도 족하다.

생각을 분별하는 능력의 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요구받고 있고 그것을 통해 성공과 지위를 가지려고 한다. 성과만 우선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개인을 피폐하게 한다. 정작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인지도 알 수 없고, 적절히 맞는지도 모를 일이다. 너무 많은 정보의 자극 속에서 이런 생각의 상황은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은 물론 주변과의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때일수록 생각에서 벗어난 경지로 떠나보고 싶다. 본질이 무엇인지 스스로 안에서부터 찾고 싶어진다. 그 과정에서 정말 생각 이전에 소중한 것들이 눈에 들어올 것만 같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을 것이다.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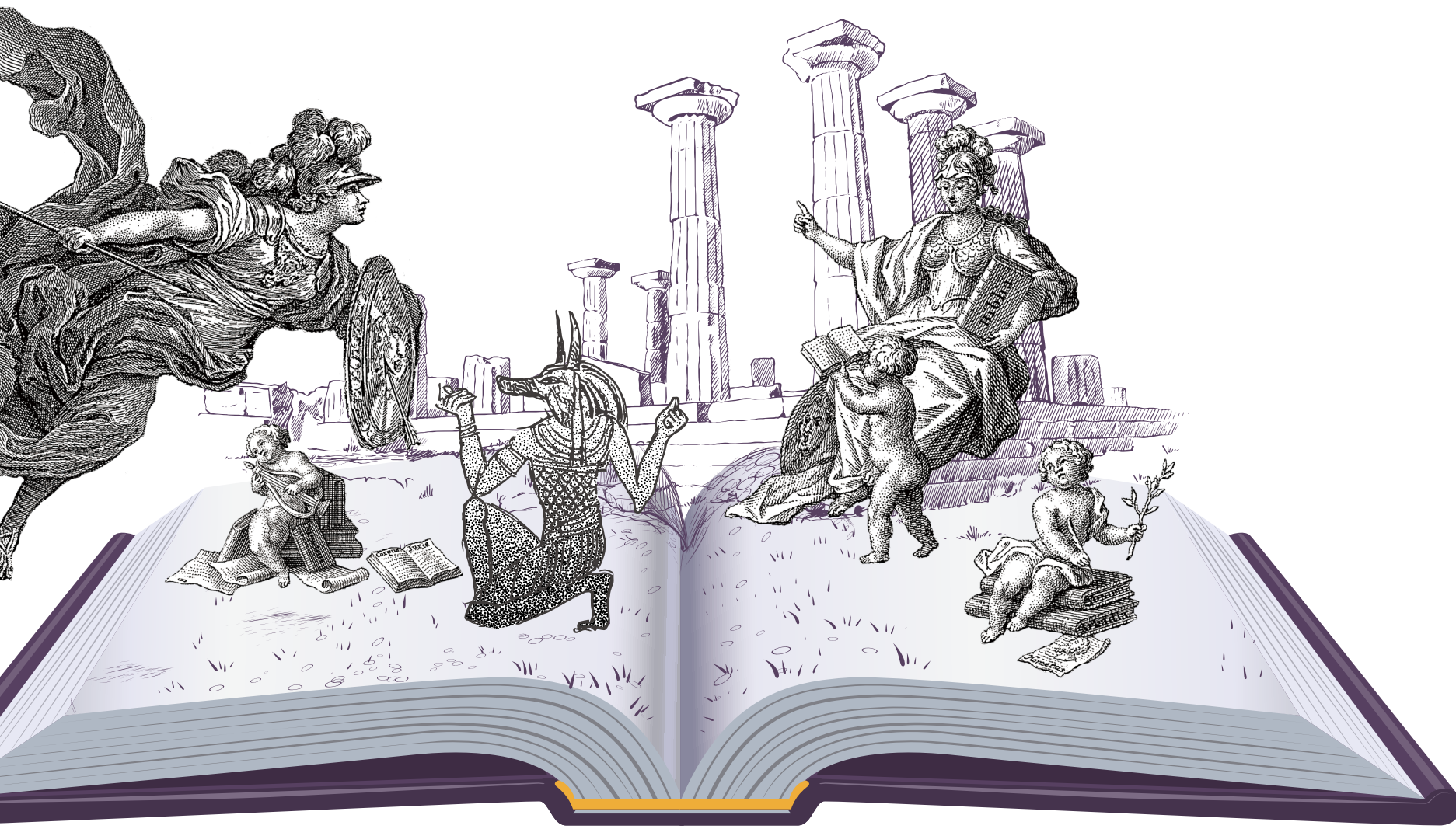
김현식 • 문화정보콘텐츠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문화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중원대학교 특임교수이자 미래학회 연구학술인이며, 대표 저서로는 《문화로 읽는 세상》이 있다.

종교와 도서관: 그 동행과 여정

모든 종교는 영적 존재에 대한 숭배와 믿음이다. 그 배후와 맥락에는 신화가 존재한다.

인류의 6,000년 문화사를 대변하는 문명, 종교, 역사, 문자, 매체, 기록, 도서관을 역추적하면 신화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글 윤희윤(대구대학교 명예교수)



종교의 모태로서의 고대 신화

고대 메소포타미아 도시국가들은 **수메르** 신화를 바탕으로 고도의 문명을 창출하였다. 그 흔적은 거대한 신전 및 지구라트 축조, 태음력과 60진법 사용, 함무라비법전 제정, 설형문자 및 점토판 개발, 아슈르바니팔 왕립도서관 건립 등이다. 수메르 신화에서 파생된 다신교는 ‘그리스 헬레니즘과 팔레스타인 헤브라이즘’에 근간을 제공하였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내세관을 중시하는 오시리스 신화를 기반으로 나일 문명이 탄생하였다. 피라미드, �핑크스, 상형문자와 파피루스, 미라와 사자의 서, 알렉산드리아도서관 등이 이를 증명한다. 고대 **인도**에서도 인더스 문명을 접수한 유목민 아리아인이 브라만교를 만들었다. 인도 신화 및 브라만교를 기반으로 형성된 종교가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등이다.

고대 서양문명의 거점이었던 **그리스**에서는 마케도니아의 올림포스산이 신들의 궁전이였다면, 델피의 파르나소스산은 신탁의 영지였다. 그리스인에게는 신의 숭배가 곧 종교였다. 그리스 신화는 삶과 종교, 문화와 예술에 투영되었다. 메소포타미아·이집트·에게 등의 고대 문명이 융합된 아테네, 사랑과 연인을 위한 화산섬 산토리니, 미술·조각·연극·영화의 즐거이었던 신들의 제왕 제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사랑의 신 에로스 등은 신화에 바탕을 둔 그리스 문명사의 흔적이다. 그리고 로마 신화 및 문명의 토대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대 **이스라엘**은 신화 및 다신교의 분향이자 고대 문명의 요람인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자리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시리아·이집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였다. 수도 예루살렘에서는 아브라함 신앙을 계승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시차를 두고 등장하였다. 해서 예루살렘은 유대교 원천, 예수가 고난받은 기독교 성지, 무함마드(마호메트)가 승천한 장소로 화자된다.

이처럼 고대 수메르가 신화의 요람이었다면 이집트는 신들의 천국이었고, 인도와 그리스는 신들의 향연장이었다. 그럼에도 수메르와 이집트, 인도, 그리스는 각각의 신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신교 국가였다. B.C. 6세기 고타마 싯다르타가 창시한 불교는 유일신이 없으며 마음 수행과 깨달음을 중시한다. 반면에 예루살렘에서 탄생한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는 아브라함계 일신교다.

고대 신화 및 종교의 유산인 신전 도서관

고대 신화에서 파생된 무수한 종교, 그 역사적 흔적은 점토판, 파피루스, 양피지, 죽간목독(竹簡木牘), 종이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기록은 삶과 지식에 대한 지문인 동시에 수상(手相)이기 때문이다. 문자와 문장이 지문에 해당한다면 기록매체는 수상을 대변한다. 사본학, 고문헌학, 파피루스학 측면에서 고대 기록의 주류 매체는 파피루스 두루마리였으나, 비잔티움 제국에서 양피지 두루마리에 이어 코덱스(날장을 묶어 표지로 싼 것)가 범용되었고, 이슬람 제국에서 종이로 대체되었다. 고대 필사본은 시대를 달리하며 라틴어, 시리아어, 아랍어 등으로 번역·중역되어 왕실(제국) 도서관, 정치인·성직자·학자 등의 개인 도서관, 수도원·모스크·사찰의 부속 도서관에 책이란 이름으로 보존되었다.

그러므로 고대 신화 및 종교를 기록한 책의 율타리는 신전 도서관이다. 가령 이집트 신화를 소환하면 책은 지혜의 여신 토트(Θῴθ)의 화신이다. 그리스·로마 신화를 빌리면 제우스 이마에서 탄생한 여신 아테나(Aθηνά)와 미네르바(Mīnerwa)의 선물이다. 그 원천은 수메르, 에블라, 테베 등이고, 지류는 고대 그리스·로마, 레반트 지역(소아시아와 고대 시리아 지방의 지중해 연안), 극동이다. 그리고 무수한 지류가 합류된 에블라 왕실기록관, 아슈르바니팔 왕립도서관, 알렉산드리아도서관, 수도원 도서관과 지혜의 집, 해인사 장경판전(藏經板殿)은 책의 대하이자 도서관의 바다다. 그들에 대한 독서는 지적 및 정서적 유희다. 책

의 행간을 왕복하며 지적 허기를 채우는 과정에서 희로애락이 교차하고, 미지를 여행한다. 독서가 생활화 되면 책은 삶과 밀착된다. 그것이 책과 도서관의 기호학이다.

그러나 역사를 반추하면 신의 저주는 금서로, 악마의 축복은 분서로, 인간의 무지와 탐욕은 비블리오코스트(Bibliocaust)*로 책과 도서관을 사지로 몰았다. 그럼에도 책은 부활하였다. 에블라 왕궁터에서, 수메르 왕실에서, 이집트 모래사막과 파라오 신전에서, 사해 동굴의 항아리와 둔황 막고굴에서, 헤르쿨라네움 화산재 속에서, 고대 성채 유적지에서, 유대교 회당의 게니자에서, 중세 암벽과 심산의 수도원에서 도서관으로 귀환하였다. 이슬람 왕조는 도서관을 '지혜의 집'으로 지칭하였고,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깨달음을 통해 나타나는 근원적 지혜인 '반야'로 화답하였다. 해서 책이 지식과 기록에 대한 역사적 증거라면 신전 도서관은 삶의 동반자인 동시에 지식문화의 종석이다.

* 비블리오코스트(Bibliocaust)

대학살을 뜻하는 '홀로코스트(Holocaust)'와 서적을 의미하는 단어 '비블리오(Biblio)'가 합쳐진 단어다.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책을 계획적으로 파괴하는 악행을 나치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 비유했다.

신전 도서관을 계승한 종교 도서관

고대에서 중세까지 다신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경전 및 관련 자료를 수장한 신전 도서관은 인류 문명 및 종교사의 속살을 간직하고 있다. 단순한 지식 저장소가 아니라 신성과 모독에 대한 지혜 및 지식을 구하는 성소이다. 그 후신이 통칭 종교 도서관인데, 서양에서는 수도원 도서관·교회 도서관·복음 도서관, 이슬람 국가에서는 모스크 도서관과 지혜의 집, 한국을 비롯한 극동에서는 신학 도서관과 불교 도서관 등으로 별칭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종교 도서관 중에는 신학대학 및 교회에 부설된 도서관이 가장 많다. 예컨대 1973년 출범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는 가톨릭·신학대학 소속의 도서관이 많음을 감안하여 2017년 한국신학대학 도서관협의회로 개칭하였다. (사)한국복지목회협의회가 추진하는 교회 중심의 작은도서관은 북 카페, 자료 대출, 신앙 상담, 이웃과의 사랑방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삼보(불·법·승) 사찰인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를 비롯한 전국의 유명한 사찰에는 불교 전문 도서관 내지 사찰 자료실이 있다. 그 가운데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해인사 장경판전은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2015년에는 CNN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15곳 중 하나로 소개하였으며, 2017년에는 프랑스의 《르 피가로 이모빌리에》《르 피가로》의 부동산 특별판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10선 중 일곱 번째로 선정하였다.

요컨대 고대 신화에서 태동한 신전과 종교, 그리고 신전에 부설된 도서관은 힌두교의 베다, 유대교의 타나크(율법서인 토라, 예언서, 성문서), 불교의 경전(초기 불경과 대승 불경), 기독교의 성서(구약과 신약), 이슬람교의 쿠란과 하디스 등과 관련 자료를 보존하면서 수행과 예배, 교리 습득, 복음 전파 등을 지원한 성스러운 공간이었으며, 현재도 지구촌 순례객을 유혹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밀착된 작금의 종교 도서관은 예배와 신앙생활, 교육과 학술 연구, 평생학습, 공동체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❶

윤희윤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협회장,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대구광역시 문화상과 대한민국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대구대학교 명예교수이다.

14 사서 큐레이션
봄 향기를 머금은 4월의 전시

18 오늘의 만남
모두가 창작자가 될 시대를 준비합니다
작곡가 김형석

22 꿈을 이루는 도서관
독서 취향에 맞는 책을 추천해 드려요
'서울특별시교육청송파도서관'

26 보물을 찾아서
프랑스 최초의 공공도서관
마자랭 도서관(Bibliothèque Mazarine)과 특별한 컬렉션

30 도서관 트렌드
다문화 시대, 도서관의 역할



도서관을 만나다

봄 향기를 머금은 4월의 전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한국문학관과 함께 3월 12일(화)부터 4월 21일(일)까지 본관 1층 전시실에서 <문학의 봄·봄(Spring & Seeing in Literature)> 전시회를 개최한다. 다채롭고 풍성한 자료를 통해 색다르게 봄을 경험하고 만끽할 수 있는 전시다.

글·사진 국립중앙도서관





문학작품 속 ‘봄’을 통한 시대적 의미 환기

〈문학의 봄·봄〉전시는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봄’의 의미를 문학작품을 통해 살펴보는 전시다. 상춘(賞春)의 기쁨, 생명에 대한 예찬과 경의, 혹은 간절한 자유의 염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마련되어 있다. 꽃 위주의 봄 전시와 달리, 작가의 붓과 펜 끝에 기록된 봄을 따라가고자 한 것이 이번 전시의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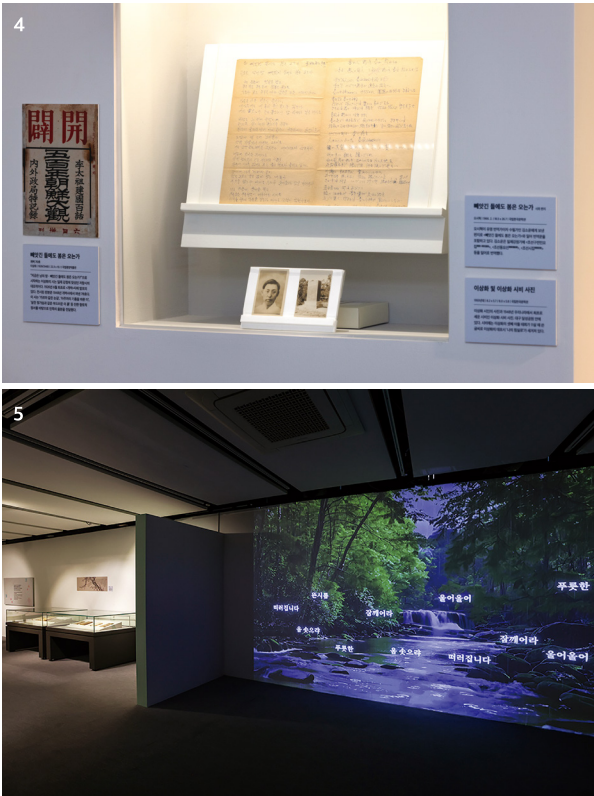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 ‘어허 우리 벗님네야, 화전놀이 가자스라’에서는 조선시대 들과 산으로 나가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한 작품을 소개한다. 조선 가사문학의 효시로 불리는 정극인(丁克仁, 1401~1481)의 〈상춘곡〉은 안빈낙도하는 사대부의 삶을 읊었고, 〈덴동어미 화전가〉는 여인들의 고된 시집살이와 굴

곡진 삶을 한바탕 노래로 풀었다. 이외에 김홍도(金弘道, 1745~?)의 ‘노란 고양이와 나비를 놀리다(黃猫弄蝶)’, 안중식(安中植, 1861~1919)의 ‘배를 타고 복사꽃 마을을 찾아서(桃源行舟圖)’ 등의 고서화는 진한 춘흥(春興)을 전한다.

2부에서 4부는 근대 시기 봄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주제별로 살펴본다. 2부 ‘빠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근대가 식민의 비애와 함께 시작되었음을 상기시킨다. 작품 속에서 ‘봄’, ‘꽃’, ‘님’, ‘그날’과 같이 저마다 봄을 지칭하는 표현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자유와 광복을 갈구한 이상화, 한용운, 윤동주 등의 시를 소개한다. 특히 이상화의 〈빠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원문 및 우리나라 최초 시비(詩碑)인 ‘이상화 시비’(1948년)도 사진으로 만나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이육사의 시집 초판본 《육사시집》, 난초 그림 묵란도 ‘의의가패(依依可佩)’와 친필 엽서는 저항시인 이육사의 기개를 가늠케 해준다. 식민 시기 봄 풍경을 담은 ‘경성의 미관’ 엽서도 볼거리다.

3부는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내음새’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단옷날 시작된 춘향과 이몽룡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춘향과 이몽룡의 이야기는 판소리부터 신소설, 시, 영화까지 단골 소재로 등장했기에 판소리 〈춘향전〉을 옮긴 신소설 〈도상옥중화〉(1951)



와 시 〈추천사〉(1956, 서정주)를 원본으로 전시하고 있다.

4부 ‘봄은 고양이로다’에서는 근대적 감성으로 봄을 노래한 시와 수필이 소개된다. 고양이의 입술과 수염, 털에서 봄을 시각화한 이장희의 〈봄은 고양이로다〉가 실린 근대 잡지 《금성》 3호(1926),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이 담긴 《영랑시집》(1935), 수필 〈인연〉으로 유명한 피천득의 〈봄〉(1959)이 실린 《금아시문선(琴兒詩文選)》도 눈여겨볼 만한 희귀 자료다.

회화, 음반, 낭송시와 미디어 아트까지 풍성한 봄맞이 선사

〈문학의 봄·봄〉전시는 문학작품뿐 아니라 봄을 소재로 한 그림, 음반과 낭송시, 미디어 아트 작품도 포함하고 있다. 김은호의 그림 ‘벚나무와 새’나 오지호의 그림 ‘사과밭’을 만나볼 수 있으며, 귀에 익숙한 흥남파 작곡의 ‘봉선화’를 1940년 녹음한 김천애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 이외에도 1940~50년대를 풍미한 노래 ‘꽃마차’(이재호 곡, 반야월 작, 진방남 노래), ‘봄날은 간다’(박시춘 곡, 손로원 작, 백설희 노래) LP판도 전시한다. 백석의 시 〈내가 생각하는 것은〉과 정지용의 시 〈춘설〉 등 봄 시 6편을 낭송하여 듣는 체험도 있다.

이 외에 미디어 아트도 2종 전시된다. ‘상춘’은 설산 풍경에서 시작하여 나비와 새가 날고 꽃잎이 흩어지는 들로 옮겨간다. 여유히게 노 젓는 어부, 꽃놀이를 즐기러 나온 여인, 술상을 차리고 노는 선비들의 야흥(野興)이 봄을 재촉하는 비와 함께 오버랩되며 마무리된다. 한편 ‘마음에 내리는 봄’에서는 허난설헌, 노천명, 박목월 등 6인의 〈봄비〉시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아트를 만나

볼 수 있다. 비처럼 내려오는 복수의 단어 중 하나를 골라 손을 대면 그 단어가 포함된 시구와 창작한 시인을 확인할 수 있다. 봄 음악이 들리고, 꽃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독립된 공간에서 오감으로 봄을 만끽해 보기 바란다. ❶

- 1 봄의 아름다움이 표현된 조선시대 고서화들
- 2 안빈낙도하는 사대부의 삶을 읊은 〈상춘곡〉
- 3 여인들이 화전을 먹으며 굴곡진 삶을 노래한 〈덴동어미 화전가〉
- 4 2부 속 이상화의 〈빠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원문 및 이상화 사진과 시비
- 5 〈봄비〉시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아트 ‘마음에 내리는 봄’
- 6 꽃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미디어 아트 ‘상춘’
- 7 1940~50년대 봄 노래가 수록된 LP판

문학의 봄·봄(Spring & Seeing in Literature)	
전시회는?	
전시명	문학의 봄·봄(Spring & Seeing in Literature)
전시기간	2024년 3월 12일~4월 21일 ※ 3월 25일, 4월 8일, 4월 10일 휴무
전시장소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 전시실
입장료	무료
내용	조선~근대 ‘봄(spring)’을 그린 문학작품 속 ‘봄(seeing)’의 의미를 조망 - 〈상춘곡〉, 〈덴동어미 화전가〉, 〈도상옥중화〉 등 고문헌 및 희귀 자료 - ‘상춘’, ‘마음에 내리는 봄’ 등 관련 미술 작품 및 미디어 콘텐츠
문의	02-590-0582



모두가 창작자가 될 시대를 준비합니다 작곡가 김형석

작곡가 김형석은 우리나라 대중문화사(史)를 논하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다.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지만 새로운 음악, 새로운 시대에 대한 고민을 품고 있다. 이루어놓은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고민하는 사람, 김형석이다.

진행 이혜민 사진 안호성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김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쓴 곡은 대략 1,500곡 정도 되고요. 대중음악뿐 아니라 드라마 음악, 영화음악의 작곡·편곡과 제작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음악 안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곡가가 되셨는지와 지금까지 작업한 곡들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은 음악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피아노를 가르치셨어요.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서 어머니 집에서 피아노 레슨을 하셨죠. 주로 수험생들을 가르치셔서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 학생들이 저희 집에 오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고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죠. 그게 작곡가로서 직업을 갖게 된 천혜의 조건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음악 환경에 놓였고 한양대학교 작곡과에 입학해서 클래식을 전공했어요.

작업한 곡들로는 김광석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김건모의 '첫인상',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임창정의 '그때 또 다시',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등 감성적인 곡을 위주로 작업했습니다. 물론 몇 년 전 언니쓰의 '맞지' 같은 댄스곡도 썼고요. 대중음악뿐 아니라 영화 <엽기적인 그녀>, 드라마 <눈이 부시게>, 뮤지컬 <엄마를 부탁해> 등 다양한 곳에서 음악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키셨습니다. 곡을 쓰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곡을 쓸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어떤 선입견이나 경험치 때문에 조심하거나 차단해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100%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잖아요.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내 안에 용해해서 음악으로 끄집어 내놓는 것, 이것은 노력으로도 가능하고 혹은 천성일 수도 있겠죠. 저는 노력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술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티브이자 원천이 '동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지키기가 힘들죠. 주책이고 철없다고 할 테니까요. 그럼에도 그런 노력이나 시도를 하며 계속 축수를 꺼내놓는 거죠. 천재들은 일부러 꺼내지 않아도 축수투성이겠지만 저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웃음) 계속 그 축수를 끄집어내려고 노력해요.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타 장르의 예술을 접할 때, 혹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계속 그 상황들을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를 생각해요.

김형석 •

한양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했으며 대중음악은 물론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 다방면에서 작곡가 및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아트팩토리, 노느니 특공대엔터테인먼트의 대표로서 음악 관련 플랫폼이나 인재 양성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대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공로패(2018), 통일부 장관 표창(2017), 제3회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 표창(2012) 등을 수상했다.

그런 것들이 영감이 되어 작곡 활동을 해오셨나요?

사실 제 초창기 곡들은 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누가 의뢰를 안 했으니까 제 얘기를 쓴 거죠. 그런데 지금은 대상에서 영감을 얻는 경우가 많아요. 영화나 미술, 어떤 사람의 이야기, 혹은 신문의 기사에서도 영감을 얻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작곡가는 어깨를 낮추고 그런 것들을 계속 흡수하려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 안에 채워진 것들이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음악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각하며 나아가는 거죠. 모티브는 마음에서 오지만 이것을 3분이나 5분 혹은 긴 음악으로 만드는 건 그

아말로 설계거든요. 설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머리로 하는 거죠. 영감은 마음으로, 이후의 과정은 철저히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음악은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음악을 어떻게 보시나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서사적인 음악을 좋아했어요. 기승전결이 있고 코드도 바뀌는 웅장하고 화려한 음악들을 좋아했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두 마디, 네 마디가 반복되는 패턴 위에 멜로디나 랩이 들어가죠. 일종의 타악기 개념의 멜로디를 많이 써요. 더 쫓개지고 더 짧아진 거죠. 저는 그게 사회나 문화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태초에 음악을 들었을 때는 멜로디라는 개념이 없었을 테니까 북을 두드렸겠죠. 기분이 좋거나 위급한 상황에도 두드렸을 거예요. 요즘도 그런 리듬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더 원초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리듬은 결국 반복인데 계속 리듬만 바뀌서 치면 흥이 나질 않잖아요. 지루할 수 있으니까 멜로디나 랩을 계속 바뀌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훅(Hook)’이라고 하는 정말 기억에 남는 멜로디가 하나 들어가고 또 바뀌는 식으로 변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공동 작업도 가능해졌어요. 여럿이 작업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게 요즘 사회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의견들이 있듯이 음악도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음악뿐만 아니라 시대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AI(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업계 분위기는 어떤가요?

옛날에는 누구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실행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무수한 노력과 공이 더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그 실행과 결과물을 시가 만들어내는 시대예요. 음악을 요청하면 그에 맞는 영상까지 만들어주니까 중간 단계를 기계가 하는 거죠. 결국 아이디어가 전부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인문학이나 철학이 훨씬 더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이야기들이 생길 테니까요. 자기 안으로 더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인간의 본질과 나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면 당연히 철학과 인문학이라는 교집합이 생길 거예요. 이제는 아티스트의 정의도 ‘자기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악도 곡을 ‘쓴다’고 표현하고 글에도 ‘쓴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술은 도구가 다를 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과 음악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글은 정확하죠.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적혀 있잖아요. 물론 글에 메타포가 많이 들어가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글은 활자로 박혀 있어서 내용 파악을 할 수 있고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음악은 청자의 몫이 큰 것 같아요. 같은 음악을 들어도 청자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다르게 들리잖아요. 특히 연주곡처럼 글이 없는 음악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슬프게 들릴 수 있죠. 이렇게 표현은 같아도 듣는이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음악인 것 같아요.

평소 책은 많이 읽으시는 편인지요.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도서관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머리말에 책이 몇 권 있긴 합니다. 요즘에는 한류에 대해 연구한 책을 많이 보고 있고, 소설책은 못 읽고 있어요. 시간이 된다면 장편소설을 읽고 싶습니다. 도서관은 아무래도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소리를 내고 시끄럽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 솔직히 자주 가지는 않아요. 음악은 책으로 배울 수가 없잖아요. 음악은 소리예요. “도, 미, 솔이 있고 이것이 화음이다”라는 설명보다 피아노로 도, 미, 솔을 쳐주면 되죠.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에도 음악 감상실을 더 많이 갔어요.

끝으로 《오늘의 도서관》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지금 과도기에 있는 거 같아요. AI라는 정말 큰 물결이 다가오고 있어서 사실 창작자들의 공포가 심해요. 우리가 치타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듯이 80명의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밤을 새서 해야 하는 일들을 시가 5분 안에 하는 시대거든요. 반면 AI를 도구로 사용하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작업 방식이나 작업에 대한 가치 기준도 바뀔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이 큰 물결에 못이 젓을까 걱정하기보다 이 물결을 어떻게 탈 것인가를 연구하면 훨씬 더 재미있는 세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AI로 인해 작곡가, 작가, 건축가 등 창작자의 역량이 섞여서 경계가 허물어질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음악을 통해서 예술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는 작곡가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간의 본질과
나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면
당연히
철학과 인문학이라는
교집합이 생길 거예요.

이제는 아티스트의 정의도
‘자기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곡가 김형석 인터뷰 영상은
국립중앙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독서 취향에 맞는 책을 추천해 드려요 ‘서울특별시교육청송파도서관’

전국의 모든 도서관은 이용자의 독서 증진을 위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추천 도서 선정과 북 큐레이션 등에 심혈을 기울였던 서울특별시교육청송파도서관(이하 송파도서관)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용자 개개인의 독서 취향에 주목했다.

그 결과, 성격유형검사와 심리 테스트, 독서 콘텐츠를 결합한 ‘독서유형별 온라인 책 추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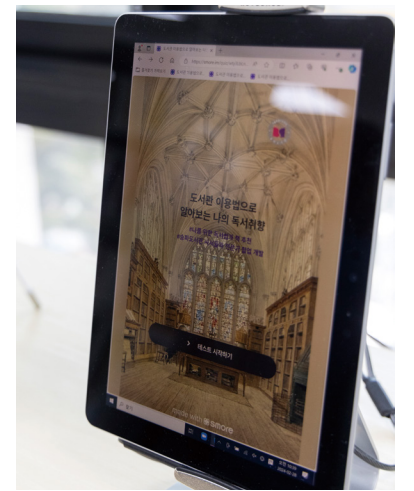
취재 장성욱 사진 안호성

서울특별시교육청송파도서관
주소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263(오금동)
전화번호 02-3434-3333

도서관 이용자 독서 취향을 반영한 서비스

1994년에 개관해 송파구 내 최다 장서(24만여 권)를 보유 중인 송파도서관은 일평균 방문자 수가 5,000여 명에 달하는 활기 넘치는 공공도서관이다. 사시사철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과 평생학습 강좌 등을 운영하는 송파도서관은 책과 이용자를 잇기 위해 북 큐레이션과 추천 도서 목록 제공에 힘을 쏟고 있다. 송파도서관의 김지혜 사서는 이용자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양서를 선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모든 사람의 독서 취향과 기호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북 큐레이션과 추천 도서 목록이 다독가에게는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지만 독서에 큰 흥미가 없는 이용자까지 사로잡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어요. 독서의 문턱을 조금 더 낮추고 북 큐레



송파도서관 내에 비치된 독서 취향 테스트 코너



서울특별시교육청송파도서관 2층 어학문학실

이션 자체에 흥미를 갖게 만드는 결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 취향대로 손쉽게 책을 고를 수 있다면 책 읽기가 훨씬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독서유형별 온라인 책 추천 서비스’는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송파도서관이 고심 끝에 찾은 실마리는 ‘취향’이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이 개인의 취향과 기호에 맞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소비 경향에 주목했고, 도서관 이용자도 개인의 독서 취향에 맞는 책을 원할 것이라는 방향으로 접근해 방법을 모색했다. 2022년 4월, 송파도서관 사서들은 학습 커뮤니티를 구성해 3개월간 연구를 진행했고, 노력 끝에 같은 해 8월 ‘독서유형별 온라인 책 추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었다.

성격유형검사, 심리 테스트, 독서 콘텐츠의 결합

‘독서유형별 온라인 책 추천 서비스’는 스마트폰 또는 PC로 도서관 이용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독서 유형별 특성에 맞는 문학 캐릭터와 독서법, 책을 추천해 주는 맞춤형 독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송파도서관은 서비스 개발을 위해 당시 유행했던 MBTI 성격유형검사와 독서를 접목해 테스트 문항(질문 12개, 응답 24개)을 설계했다. 심리 테스트처럼 진행되는 방식이라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이용자가 스마트폰 또는 PC로 책 추천 서비스에 접속해 ‘책을 고르고 읽는 방법, 도서관 정보를 얻는 방법’ 등을 묻는 문항에 답을 체크하면, 이용자에게 맞는 독서 유형 문학 캐릭터를 알려준다.

주제에 맞춰 큐레이션되어 있는 책들



심리 테스트 템플릿을 활용한 화면 구성



송파도서관의 책 추천 서비스를 홍보하는 포스터

“성격유형검사를 토대로 독서 유형을 16가지로 분류했고, 해당 유형에 가까운 문학 캐릭터를 찾아 매칭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 《위대한 개츠비》의 개츠비, ‘해리 포터 시리즈’의 헤르미온느 등 우리에게 친숙한 문학 캐릭터와 주요 성향에 대한 키워드를 함께 제시한 것이지요. 자신을 문학 속 캐릭터에 맞춰보는 재미가 있어서인지 이용자분들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어요.”

송파도서관은 독서 유형별 문학 캐릭터 소개에 그치지 않고, 각 유형에 맞는 독서법과 현재의 독서법을 보완할 수 있는 추천 독서법도 함께 제시한다. 이는 이용자가 자신의 독서 성향을 파악하고 독서력을 더욱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게다가 독서 유형별로 추천 도서를 2권씩 소개하는데 일반 성인의 경우 선호할 만한 도서와 취약한 분야의 도서를 골고루 선정해 준다. 청소년의 경우는 진로·진학 등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를 추천한다.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 독려로 이뤄낸 성과

송파도서관은 서비스를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연과학실에 테스트 참여용 태블릿을 비치해 ‘독서유형별 책 추천 큐레이션 코너’를 따로 만들었다. 또한 이용자들이 테스트 후 도서를 바로 대출할 수 있도록 추천 도서 서가도 가까이 배치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누리집에 ‘독서유형별 책 추천’ 게시판 메뉴를 신설했다. 관내 학교도서관에는 서비스 홍보문 및 매뉴얼을 배포해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자료 구입 시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그 결과 SNS 교육 채널 및 지역 언론에 독서교육 우수 서비스로 소개되는 한편, 2022년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 학습커뮤니티’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에는 ‘제17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았다. “관내 학교도서관 담당 사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독서 유형을 친구들과 공유도 하고, 추천 받은 책들을 빌려가며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후기를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했어요. 장서를 구비할 때 추천 도서 목록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서비스 개발 과정이 쉽지 않아 힘들기도 했지만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즐거운 경험을 선사한 것 같아 정말 뿌듯했어요.”

어린이도 참여 가능한 서비스 개발 노력

김지혜 사서는 ‘독서유형별 온라인 책 추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선보였던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추천 도서 목록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다양한 책들을 계속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에요. 게다가 비슷한 독서 유형별 이용자들을 모아 독서토론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무엇보다 서비스 대상이 성인과 청소년뿐이어서 추후에는 대상을 조금 더 확장해 어린이들도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테스트를 개발해 보고 싶어요.”

송파도서관은 오늘도 책과 이용자를 잇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다양한 독서 이벤트와 미션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독서 활동을 독려하는 ‘지금, 송파도서관 독서온도계’ 사업을 비롯해 유아·청소년·어린이·성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독서교육도 꼼꼼히 진행 중이다. 이용자의 독서 생활을 생각하는 마음, 공공도서관의 기본 덕목을 꾸준히 지켜온 송파도서관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활기 넘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❷



송파도서관 내 어린이실 모습



송파도서관 정보와 북 큐레이션 된 로비



‘독서유형별 온라인 책 추천 서비스’ 담당 김지혜 사서

“독서 유형에 따라 독서법을 추천하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어요. ‘독서유형별 온라인 책 추천 서비스’는 성인용과 청소년용으로 나눠 개발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32개의 독서 유형에 대한 독서법이 필요했거든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나던 작업이었는데 송파도서관 사서들의 열정과 이은경 독서교육 전문가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개발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 최초의 공공도서관 마자랭 도서관(Bibliothèque Mazarine)과 특별한 컬렉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편안합니다.” “단연컨대 파리 최고의 장소!” 어떤 도서관이 이러한 찬사를 들을 수 있을까? 게다가 이곳은 센강 옆에 있다. 아름다움이 흔하게 널려 있는 파리에서도 아름답기로 손에 꼽히는 곳이기엔, 도서관은 순간의 감탄 너머 깊은 감동을 자아낸다. 오래도록 기록해 온 서사와 풍경에 서서히 스며드는 프랑스 최초의 공공도서관, 마자랭 도서관(Bibliothèque Mazarine)이다.

글 김윤아(《서점 여행자의 노트》 저자) 사진 위키피디아

마자랭 추기경에서 시작되는 도서관

도서관은 파리 중심부, 6구 예술의 다리 폰데자르 건너편에 있다. 프랑스 학술원(Institut de France)의 왼쪽 건물에 자리한다. 고딕 양식의 고풍스러운 외관을 따라 안으로 들어서면 17세기 왕궁 풍경이 펼쳐진다. 입구에는 루이 15세 시대에 제작된 상들리에 아래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키케로(Cicero),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등 당대 철학가의 흉상들이 위엄 있게 놓여 있다. 65m에 달하는 복도를 거닐면 끝에는 이탈리아 수도사이자 지리학자 코로넬리(Coronelli)의 거대한 지구본과 마주한다. 도서관의 장서는 60만 권에 달한다. 중세 시대의 필사본부터 르네상스 시대의 초판본에 이르는 서적과 고지도와 설계도가 있으며, 200여 점이 넘는 예술품이 대부분 공용 공간에 전시되어 있다. 작품들에 둘러싸인 140석 규모의 자리는 아늑하고,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아름다운 도서관에 우연은 없다. 도서관의 위치와 장소, 소장품, 내부 규정까지, 전에 없던 ‘아름다운’ 도서관을 위한 긴 시나리오의 결말이다. 오래된 이야기는 질 마자랭(Jules Mazarin) 추기경에서 시작된다.

프랑스 최초 공공도서관의 탄생

이탈리아 출신으로 뛰어난 정치가였던 마자랭은 프랑스로 귀화해 최고위 관직에 오른 인물이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탁월한 안목으로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을 포함해 당대 작가들을 후원하며 폭넓게 작품을 수집했다. 또한 위대한 도서관을 짓겠다는 일념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책과 사료를 구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5,000여 권의 장서를 축적해 낸다.

이 시기에 마자랭은 가브리엘 노데(Gabriel Naudé)를 사서로 영입한다. 명석한 학자이자 유능한 사서였던 노데는 이탈리아에서 추기경들의 사서로 경력을 쌓았고, 마자랭의 전폭적 지지로 유럽 전역에서 수많은 책과 자료를 발굴한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작품들도 기꺼이 구매하며, 모든 주제의 작품이 있는 곳에서 기존 지식에 동의하거나 반박하며 발전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믿었다. 고유한 통찰과 경험으로 노데는 사서직을 맡은 지 15개월 만에 1만 권의 책을 수집하며 세간의 주목을 끌어나간다.

노데는 책과 함께 도서관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고 《도서관 설립법(Advis pour dresser une bibliothèque)》(1627)에서 이상적인 도서관의 개념을 설파했다. 도서관의 설립 이유와 필수 시설, 장소 구성, 서적 진열, 그리고 도서관의 궁극적 목적을 다루며, 모름지기 도서관이란 책이 모인 곳이 아니라 책을 읽는 사람



예술의 다리 폰데자르와 마자랭 도서관

이 성장하는 곳, 나아가 지식과 문화가 교류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최고의 도서관을 꿈꾸던 마자랭과 새로운 도서관을 꿈꾸던 노데는 ‘공공도서관’을 선보이기로 한다. 그 시대의 책이란 권력의 상징으로 귀족과 학자, 수도사 등 일부 계층만 누릴 수 있던 사치품이었기에 전례 없던 시도였다. 굳게 닫힌 도서관의 문을 열고, 권력의 상징이었던 책을 바깥으로 꺼낸 ‘마자랭 도서관’은 1643년 ‘연구 목적을 위해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했으며, 이로써 최초의 공공도서관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당시 파리 최초의 주간지 《La Gazette》는 도서관을 “살아 있는 활기찬 곳(une bibliothèque vivante)”¹으로 묘사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높은 호기심과 배움의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기록했다.

1 《프랑스 공보》No.13(1644. 1. 30.) | 잭, 클라크 A. <가브리엘 노데와 학술 도서관의 기초>《계간 도서관》39(4), 1969)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프랑스 내란인 ‘프롱드의 난’(1648~1653)으로 1652년 마자랭이 파리에서 추방을 당하고, 도서관을 지키던 노데도 마자랭을 견제하던 세력에 의해 버릴 수 없게 되자 스웨덴 여왕의 사서직을 위해 떠나게 된다. 1653년 귀환한 마자랭이 도서관을 재건하며 노데를 부르지만, 노데는 파리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고 만다. 이후 마자랭은 도서관을 재건하며 1689년 다시 문을 여는 데 성공한다. 마자랭은 도서관이 다시 분산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 도서관을 죽기 전 자신이 설립한 콜레주 데 카르트나시옹 대학에 기부한다. 그의 바람대로, 도서관은 공공의 이름으로 프랑스 대혁명(1789~1794) 기간에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오히려 몰락한 귀족과 수도원에서 나온 책들을 받으며 최상의 컬렉션을 갖추게 됐다. 이후 콜레주 데 카르트나시옹 대학의 자리가 프랑스 학사원 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학사원 산하 도서관으로 평화롭고 고즈넉한 장소에 자리하게 됐다. 1968년부터 1974년까지 보수공사를 하여 14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열람실을 조성했고, 꾸준한 기부와 기증으로 소장품이 늘어나며 공공도서관으로 명분과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인류의 열망과 진화를 담은 컬렉션

열람실 정중앙의 중후한 책상과 녹색 조명등,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예술품은 흡사 서재나 갤러리를 닮았다. 책보다 책을 즐기는 사람을 위한 곳으로 조성된 곳은 볼거리가 풍성하지만 그중에서도 《라틴어 비문 모음집(Latin epigraphy stamping)》이 흥미롭다. 비문은 단단한 표면에 새겨진 글로 주로 바위, 돌, 건물의 벽, 금속 등에 쓰여진 것을 가리키는데, 대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 도서관이 보유한 컬렉션은 프랑스의 고고학자이자 비문학자(라틴어 비문 전문가) 레옹 레니에(Léon Rénier)의 작품이다. 레옹은 1850년부터 3년에 걸쳐 콘스탄티누스 지방, 림바이시스 및 인근 지역의 비문을 압착하거나 수집했다. 1854년 6월에는 법령에 따라 로마 갈리아의 비문 모음집을 출판할 목적으로 관련 비문을 종이 등에 찍어 문서화하는 금문 작업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의 작품의 주요 내용은 법, 조약, 계약, 유언을 비롯한 공식 문서였으며, 당시 공공 교육부를 위해 비문을 문서화하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총 73개의 상자에 수천 장의 압착 종지와 필사본, 44개의 상자에는 메모 및 편지로 광대한 자료를 남겼다. 비문 컬렉션은 역사적 맥락, 언어적 진화, 과거 문화의 예술적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프랑스의 대표적 보물로 자리매김했다. 누구나 보기



이용자들을 위한 열람실 내부



홍상이 전시된 마자랭 도서관의 계단(출처: Bibliothèque Mazarine)

어려운 곳에 새겨진 고대 비문을 종이로 옮기고, 연구와 학문, 문화와 예술의 이해를 촉진하는 비문 컬렉션은 마자랭 도서관과 닮아 있다. 몰랐던 세상을 보여주고,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며, 더 넓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의 보물이다.

이와 함께 1,500년 이전에 인쇄된 책인 인큐내불러(Incunabula)는 프랑스에서 가장 대규모인 4,200권이 소장되어 있으며, 나폴레옹이 도서관에 기증한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의 노트 12권과 17세기에 제작된 코로넬리의 지구본 등도 소장하고 있다.

마자랭의 가치관을 담은 도서관

“모든 살아 있는 영혼에게 도서관 문을 활짝 열고, 어떤 언어나 주제에 관한 책이든 그들이 원하는 모든 책을 제공하라”²는 마자랭의 당부처럼 도서관은 오늘도 변함없다. 외국인, 내국인 모두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 도서관 역사와 소장품, 건축과 장식, 자료를 소개하는 무료 도서관 투어를 제공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전시회와 콘퍼런스, 콘서트 등 문화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마자랭 도서관은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다. 그러나 도서관이 설립된 이유, 공간의 구성, 최후라는 이름으로 시도하고 기록해 온 노력과 한결같은 규정. 이 모든 서사를 알게 된다면 지적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열망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마자랭 도서관은 그러한 곳이다. ❶

마자랭 도서관은?

도서관명(프랑스어)	Bibliothèque Mazarine
운영시간	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주소	23 Quai de Conti, 75006 Paris, France
홈페이지	www.bibliotheque-mazarine.fr/fr
※ 입장은 무료이고, 열람실은 5일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연간 회원권은 15유로이다.	

2 책, 클라크 A. <가브리엘 노데와 학술 도서관의 기초>《계간 도서관》39(4), 1969, pp.331~343)

김윤아 • 《서점 여행자의 노트》 저자. 뉴욕, 런던, 파리, 리스본, 취리히 등에서 40여 곳의 서점을 탐방했고, 가장 인상적인 10여 곳에서의 기록을 책에 담았다. 다수의 매거진에 책과 여행을 주제로 한 칼럼을 기고했다. 종로의 미술관에서 ‘일상에서 영감찾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고풍스러운 대열람실(출처: Bibliothèque Mazarine)



다문화 시대



다문화 시대, 도서관의 역할

대한민국 인구는 공식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 비율은 2023년 기준 4.4%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다인종·다문화 국가’¹로 진입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은 언어, 인종, 민족, 문화적 배경 등에 차별 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다문화사회의 중추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다문화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 다문화사회에 본격적으로 대비해 보자.

글 이지옥 사진 각 도서관

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문화·다인종 국가 기준(이주 배경 인구가 총인구의 5% 이상)

도서관에서 만나는 한국어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당연시되었지만, 다문화가정은 여전히 사회 적응 과정에서 언어, 정체성의 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국인 어머니의 미흡한 한국어 능력으로 언어 문제, 문화 차이로 인한 부적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광역시립 서부도서관은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초등학교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3년 진행한 ‘서부다.한다.’ 한국어 교실은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에 스며들게 한다’는 의미로 전문 강사가 그림책을 활용하여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한국어 어휘력, 문해력을 높여주며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더불어 학교생활 적응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용산도서관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외국인 한글교실’을 운영했다.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다. 대표적으로 주한 콩고민주공화국 대사관, 주한 독일 대사관 등 22개 대사관과 협력하여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야외 수업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용산도서관은 외국인들의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문화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세계전래동화와 함께하는 책놀이’를 개최하여 다양한 나라의 전래동화를 함께 읽으며, 한국어 어휘 표현을 익히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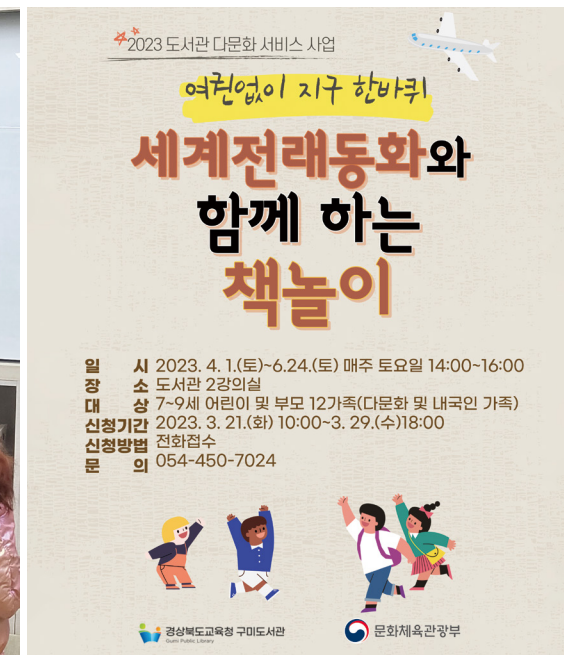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도 ‘다국어 동화구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09년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는 우리나라 창작동화와 전래동화, 외국 전래동화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6개 언어*로 제공한다. 영상은 341종이며 이를 기반으로 ‘K-그림책 큐레이션’도 함께 제공해 어린이들이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보다 많은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다문화 관련 기관 등에 웹사이트 연계 링크 주소와 웹 배너를 배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2017년 다문화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발·공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해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

* 6개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일부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타갈로그어)



대구광역시 서부도서관의 2023년 겨울방학 ‘서부 다.한다.’ 상설 한국어 교실의 운영 모습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의 ‘세계전래동화와 함께 하는 책놀이’ 포스터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 《석보상절(釋譜詳節)》

세계에서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가치를 가진 옛 책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석보상절》이라는 책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이름만은 들어봤을 것 같다. 《용비어천가》나 《동의보감》만큼 유명하지는 않아도 이름이 낯설지는 않은 책이고, 1970년 12월 30일 꽤 이른 시기에 국가 지정 문화유산인 보물로 지정되었다.

글 이기봉(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관) 사진 국립중앙도서관



1



2

《석보상절》, 세종대왕의 명으로 편찬한 석가모니 일대기

《석보상절》에 대한 소개의 내용은 보통 이렇다. 왕비 소헌왕후(昭憲王后, 1395~1446)께서 돌아가시자 세종대왕이 명복을 빌기 위해 둘째 아들 수양대군(훗날의 세조)에게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설법을 모아 편찬하게 하고 1447년(세종 29)에 간행하였다. 한글로 표기된 최초의 산문 자료로, '석보상절(釋譜詳節)'에서 석(釋)은 석가모니를, 보(譜)는 일대기를 의미하며, 상(詳)은 중요한 내용을 상세하게, 절(節)은 덜 중요한 내용은 줄여서 기록했다는 뜻이다. 총 24권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8권만이 전해진다. 그중 국립중앙도서관에는 6·9·13·19권의 4책이 소장되어 있다.

한글의 아름다운 서체(書體)

한글은 1443년(세종 25) 12월에 완성되었고, 1446년(세종 28) 9월에 창제 동기와 의미, 글자의 조성 원리를 풀이한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는 책자로 만들어 반포하였다. 그런데 그다음 해인 1447년(세종 29)에 한글 산문 형식의 글을 담은 《석보상절》이 간행되었다고 하니 놀랍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지금으로부터 까마득한 577년 전에 간행되었음에도 깨끗한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정도의 설명만으로도 《석보상절》이 중요유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될 충분한 가치를 가진 지식 문화유산임을 쉽게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 《석보상절(釋譜詳節)》의 표제(表題)와 내제(內題)

2 《석보상절》의 아름다운 한글 서체 1

요즘 한문 해석은 고사하고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자로만 기록된 고문헌을 전시하면 원본 앞은 쓱 지나가고 설명문으로 눈길을 돌려 그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한다. 하지만 《석보상절》은 다르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577년 전의 우리말을 기록한 한글이라서 유려하게 읽거나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럭저럭 읽을 만은 하다. 그래서 전시해 놓으면 한글 원문을 한 글자라도 더 읽어보고자 뚫어지게 관찰하는 사람이 많다. 《석보상절》에 기록된 한글을 보고 내뱉는 첫 마디 중 하나가 “저거 고딕체 아냐? 저때도 고딕체가 있었네!”와 같은 말이다. 요즘 쓰는 고딕체(돋움체)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도 흥미를 북돋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반응이 있다. “아~ 옛날에 쓴 건데 한글 진짜 예쁘네.”

정말 그렇다. 《석보상절》에 기록된 한글의 서체는 예쁘고 반듯하다. 《한글 서예와 한글 서체》(태학사, 2023)의 저자 홍윤표 교수는 《석보상절》의 한글은 그 조영 원리인 천(天, •), 지(地, —), 인(人, |)의 모습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붓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린 것이라고 평했다. 쉽게 말해서 붓으로 썼다면 원형의 점(•), 직선 끝이 각진 가로선과 세로선(—, | 등)의 《석보상절》 서체는 나올 수 없다는 의미다. 점이 원형이 아닌 뾰침이고 직선 끝이 각지지 않은 가로선과 세로선의 한글 서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459년(세조 5)에 간행된 《월인석보(月印釋譜)》부터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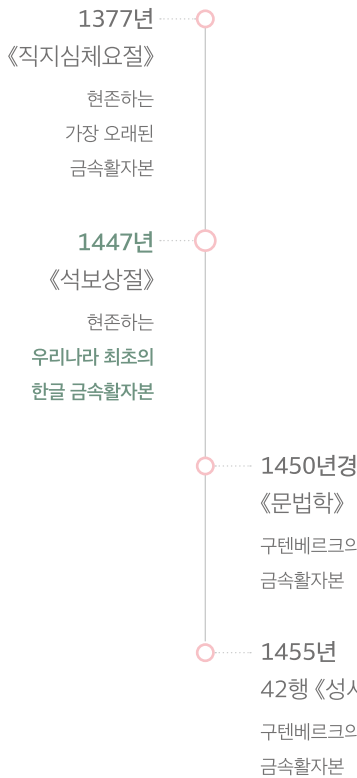
3

3 《석보상절》의 아름다운 한글 서체 2

세계에서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가치

우리나라에서 한글이 기록된 가장 오래된 옛 책은 1446년에 한글의 조영 원리를 한문으로 설명하면서 한글의 사례를 그려 넣어 간행한 목판본 《훈민정음해례본(訓民正音解例本)》이다. 그다음으로 오래된 옛 책은 1447년에 간행한 목판본의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금속활자본의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이며, 이어서 목판본의 《동국정운(東國正韻)》(1448), 목판본의 《훈민정음언해본(訓民正音諺解本)》(1451~1459)과 《월인석보》(1459)의 순서다. 이후에는 한글로 기록한 책이 줄줄이 이어져서 부지기수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만 주의 깊게 살펴봐도 《석보상절》이 가진 세계에서 두 번째의 가치,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이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새롭고 요상스러운 질문을 던져본다.

“금속활자로 주조된 세계 최초의 문자는?
그리고 두 번째의 문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고려 말인 1377년(우왕 3)에 간행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줄여서 《직지심체요절》, 더 줄여서 《직지》다.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직지》의 모든 내용이 한자로 기록되어 있으니, 세계에서 금속활자로 주조한 최초의 문자는 당연히 한자다.¹ 그렇다면 두 번째의 문자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금속활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첫 번째로 《직지》를, 두 번째로 구텐베르크(Gutenberg)의 금속활자를 떠올리는 습관이 됐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의 질문에 “서양의 알파벳 아닌가요?”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내놓을 것 같다. 그런데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로 인쇄한 가장 유명한 책은 1455년에 간행한 42행 《성서》이고, 그보다 먼저 1450년경에 라틴어 교재로 널리 쓰이던 《문법학》을 금속활자로 간행했다고 한다. 자, 이쯤에서 한글이 기록된 앞의 옛 책들을 다시 살펴보자.

1447년에 한글로 간행된 옛 책 중에는 금속활자본의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이 있는데, 이는 구텐베르크의 최초 금속활자본인 《문법학》보다 최소 3년 앞선다. 이제 분명해진다. 세계에서 금속활자로 주조된 두 번째의 문자는 서양의 알파벳이 아니라 바로 한글인 것이다. 아울러 두 옛 책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금속활자본이란 가치도 갖고 있다. 세종대왕이 《석보상절》을 읽고 찬불가인 《월인천강지곡》을 지었다고 하니, 《석보상절》을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금속활자본으로 볼 수 있겠다.

금속활자의 안타까운 우리 역사

우리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에만 환호하는 사이 잃어버린 우리 금속활자의 안타까운 역사가 많다. 작년에는 금속활자로 간행된 국보 《십칠사찬고금통요(十七史纂古今通要)》(1412)를 소개하며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본보다 빠른 조선의 금속활자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만도 23종 52책이나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번 글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주조된 금속활자의 문자가 구텐베르크의 서양 알파벳이 아니라 《석보상절》의 한글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했다. 더불어 《석보상절》이 현존하는 최초의 한글 금속활자본이라는 가치를 가진 우리나라의 소중한 지식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자 했다.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에 대한 자긍심을 넘어 금속활자의 역사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식이 좀 더 풍부해지기를 바란다. ❶

1 기록으로만 전하는 고려시대의 금속활자본으로 《남명천화상송증도가》(1239년 이전)와 《상정고금예문》(1234년)이 있는데, 이들도 모두 한자로만 기록되었다.

얀 마텔 《파이 이야기》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소설은 한 인도 소년이 한없이 넓은 푸른 바다에서 경험한 모험 소설이다.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한 소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 심리와 종교 그리고 자연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한다. 또한 이 소설을 끝까지 읽고 나면 우리는 자신에게 “나의 이야기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글 황정산(시인·문학평론가) 사진 출판사



다양한 경험으로 가득 찬 얀 마텔의 삶

《파이 이야기》의 저자 얀 마텔은 어린 시절부터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살았다. 그는 캐나다 외교관의 아들로 1963년 스페인에서 태어났다. 이후 미국 알래스카, 코스타리카, 프랑스, 멕시코 등 외교관 아버지를 따라 다양한 나라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란, 터키, 인도 등을 돌아다니며 여행했다. 캐나다 트론티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한 그는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좀 늦은 나이인 27세부터 글을 썼다. 《헬싱키 로카마티오 일가 이면의 사실들》이라는 단편소설집으로 1993년 데뷔한 이후 장편소설 《셀프》 등을 썼으나 문단에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이후 발표한 《파이 이야기》가 2002년 맨부커상을 수상하면서 그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다. 이 책은 41개국에서 번역되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그후 그는 장편 《포르투갈의 높은 산》, 에세이 《각하, 문학을 읽으십시오》 등을 펴내며 세계적 작가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파이 이야기》는 2013년 중국의 이안 감독이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 개봉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흥행하였다.



1 부커상 수상자에게 수여되는 트로피
© David ParryPA Wire

*부커상이란?

부커상(The Booker Prize)은 노벨문학상, 공쿠르상과 더불어 세계 3대 문학상으로 손꼽힌다. 1969년 영국의 식품 유통 회사 '부커 그룹(Booker Group)'이 제정한 문학상이다. 후원사의 이름을 따서 '부커상'으로 불렸으며 2002년부터 맨 그룹(Man Goug)이 후원하면서 맨부커상(The Man Booker Prize)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이후 2019년 후원사가 다시 변경되면서 현재는 '부커상'으로 불린다.

부커상은 영국연방 국적인, 아일랜드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민(이후에는 짐바브웨 시민 포함)이 영어로 쓴 소설 중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한다. 2005년부터는 영어로 번역된 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부커상(The International Booker Prize)이 새롭게 신설됐고, 2016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아시아 최초로 국제부커상을 수상했다.



2



3

인생은 이야기다

소설은 파이라는 인도 소년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는 파이의 가족은 캐나다로 이주하기 위해 동물들을 데리고 일본 해운사가 운항하는 배를 타고 떠난다. 항해하던 중 폭풍우를 만나 배가 난파되고 파이 혼자 유일한 생존자로 남아 몇몇 동물과 함께 구명보트를 타게 된다. 호랑이, 얼룩말, 하이에나, 오랑우탄이 바로 그 동물들이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싸우다 결국에는 ‘리처드 파커’라는 호랑이와 파이만 남게 된다. 호랑이 리처드 파커와 파이는 생존을 위해 서로 갈등하며 싸우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의지하며 극한의 생존을 이어간다. 파이는 호랑이와 함께 227일 동안 태평양을 항해하며 기지를 발휘하고 용기를 내어 물과 음식을 구하면서 위기를 넘긴다. 파이는 이 과정에서 리처드 파커를 통해 동물행동학을 깨치고, 자연에서의 생존 기술을 연마하게 된다. 마침내 이들은 멕시코 해안에 도착하고 해안가의 작은 마을 사람들에게 구출된다. 그러나 호랑이 리처드 파커는 정글로 사라진다.

일본 선박회사의 사고 조사원들이 사고 조사를 위해 파이를 찾아와 그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지만, 그들은 이 이야기를 믿지 못한다. 그래서 파이는 그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것은 난파선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파이의 어머니, 요리사, 젊은 선원, 그리고 파이 이렇게 네 사람이 생존의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요리사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결국 파이가 요리사를 죽여 파이 혼자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이다. 파이는 두 이야기 중 하나를 조사원들에게 선택하도록 한다. 조사원들은 첫 번째 이야기를 선택하고 그것을 공식 보고서에 남긴다.

두 이야기 모두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어느 이야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파이의 인생은 달라진다. 인생은 결국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일 뿐이다. 다만 좀 더 모험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가 파이에게 남겨진 것이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선택할지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나의 이야기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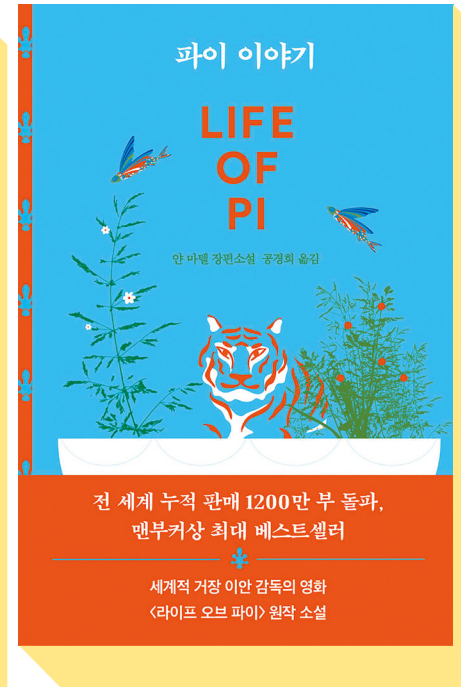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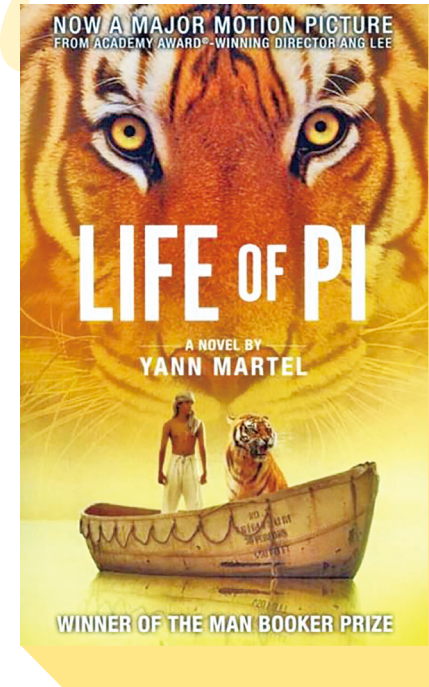
- 2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 중 호랑이 리처드 파커와 갈등하는 주인공 파이
(출처: 20세기 스튜디오)
- 3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 중 홀로 생존을 위해 사투하는 주인공 파이
(출처: 20세기 스튜디오)

다양성의 시선으로 인간과 자연을 보다

《파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양한 생각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소설이다. 주인공 파이는 여러 종교, 즉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함께 신봉하는 인물이다. 그에게 종교는 율법과 교의 같은 고정된 규범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갈 지혜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그런 이유로 그는 생존을 위협하는 극한의 상황을 헤쳐 나올 수 있었다.

또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상징하는 바도 생각해 볼 만하다. 오랑우탄은 두 번째 이야기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한다. 나약하지만 따뜻한 보호자의 이미지이다. 하이에나는 생존을 위해 폭력을 마다하지 않는 요리사와 닮았다. 얼룩말은 다친 선원과 비슷한데 그는 인간의 나약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호랑이 리처드 파커는 자연의 힘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파이는 그와 경쟁하거나 때론 협력하며 난관을 헤쳐 나간다. 둘 사이의 이런 관계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지혜를 함께 생각하게 한다. ❸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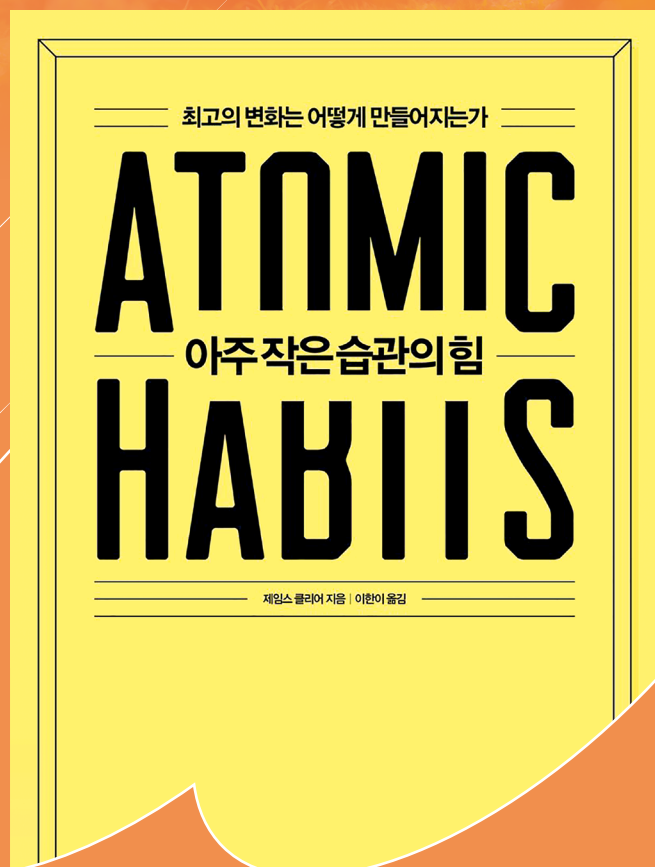


4

황정산 • 1993년 《창작과비평》에서 평론 활동을 시작했다. 2002년 《정신과표현》에 시를 발표했고, 저서로는 《주변에서 글쓰기》, 《쉽게 쓴 문학의 이해》, 《소수자의 시 읽기》 등이 있다. 현재 계간 《상상인》 주간으로 활동 중이다.

4 안 마텔의 《LIFE OF PI》

제임스 클리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를 알아야 습관을 만든다



아마 수많은 학부모가 아이들을 보며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게임 속에서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노동’은 즐겁게 하면서 숙제는 왜 스스로 하지 않을까. 그럴 때 많은 부모는 노력의 중요성을 훈계하지만, 개인의 의지에 호소하는 접근법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말한다. 제임스 클리어는 아예 관점을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개인과 그의 ‘뇌’를 분리해서 접근해 보는 것이다.

글 김건형(문학평론가) 사진 출판사

아이들의 행동으로 짐작하는 두뇌 시스템

개인과 ‘뇌’를 분리해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각자의 감정이나 욕심을 이성적 의지로 눌러 이기는 유교적 자기 수양과는 다른 개념이다. 두 뇌의 입장에서 보자면 숙제보다는 게임이 더 즉각적이고 빠른 쾌락을 선사한다. 게임은 목표가 뚜렷하고, 이를 성취하면 즉각적으로 레벨이 오른다. 또한 이를 시각적으로 곧바로 확인시켜 준다. 다시 말해 보상 체계가 확실하고 믿을 만한 것이다. 반대로 숙제는 그 목표와 성취의 보상이 (뇌의 입장에서) 뚜렷하지 않은 셈이다.

이러한 뇌의 ‘이기적’ 속성을 염두에 둔다면,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충족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그 보상의 기대와 충족이 반복된다면, 뇌는 당연히 그 반복을 통해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하게 된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행동-보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때마다 의지나 외부의 개입 없이도 자동적으로 익숙해지게 된다. 그러면 비로소 숙제를 매일 하는 습관이 들 수 있는 것이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이렇게 매번 목표를 위해 자기(의 뇌)를 극복하는 ‘결심’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어떤 방향의 행동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이를 반복하게 되는 ‘습관’을 형성하자고 말한다. 이 습관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행동에 스스로 보상을 줄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뇌를 설득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매번 목표를 위해 자기(의 뇌)를 극복하는 ‘결심’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어떤 방향의 행동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이를 반복하게 되는 ‘습관’을 형성하자고 말한다.



습관을 만드는 4가지 단계

이 책은 어떤 습관이 형성되는 데에는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이라는 4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한다. 먼저 ‘신호’ 단계는 우리의 뇌가 행동을 시작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단계다. 뇌는 주변을 둘러싼 외적 환경 중에서 무엇인가에서 보상(돈, 명예, 칭찬, 사랑, 편안함 등)이 예상된다는 신호를 알아차린다. 하루를 마칠 때가 되면, 피곤해서 바로 잠드는 것이 더 빠르고 쉬울

텐데도 우리는 귀찮게 양치질을 한다. 이는 양치질의 결과로 따라오는 어떤 보상을 이미 알고 그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동 이전의 보상을 향한 욕망이 '열망'이다. 자기 전에 양치질하는 이유는 칫솔을 흔드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쾌적함이나 건강이라는 보상을 열망하기 때문인 것이다. 즉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변화하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이 열망이다. 이 열망을 따라 움직이고 '반응'하면서 실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예상했던 '보상'을 받는다. 양치질을 마쳤으니 이제 쾌적하게 잠들 수 있다. 이 4가지 단계를 반복하고 사이클을 형성하면서 하나의 행동은 점차 습관으로 굳어지게 된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강요와 칭찬에 따라서 시킬 때만 했던 양치질이 어느새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굳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신호-보상의 체계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반복하는 것이다.

의지력보다 환경의 힘

이 책은 4가지 사이클을 반복하도록 만들면서 뇌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자동화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복된 보상 체계를 거친다면 우리의 뇌는 의식하지 않고도 특정한 신호에 익숙해지고, 그 신호가 약속하는 보상을 더 열망하게 된다. 양치질을 해야만 한다는 강제적 당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치질을 하는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품게 하고, 이 감정을 스스로 확인하는 단순하지만 구체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격려와 칭찬이 이 보상이었다면, 성인이 된 지금은 일이나 성과표처럼 그 보상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사소하지만 그것이 누적되고 반복된다면 자기 긍정과 자기 인식의 회로는 뇌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게 된다. 결국 좋은 행동을 습관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습관을 쌓아나가는 과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유도하라는 것, 특히 습관을 반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라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조언이다. 가령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무, 공부인데도 굳이 카페나 도서관을 찾아가서 할 때 능률이 더 잘 올랐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대나 간식거리가 있는 부엌이 있는 집에서는 뇌에 보상을 줄 수 있는 다른 신호가 많다. 그 대신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의 뇌 역시 '집중'이라는 특정한 신호를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된다. 이처럼 각자의 의지력



이나 자제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된 습관의 흐름에 주목하고, 그 습관을 유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장기적으로 어떤 행동을 지속하게 해준다. “행동은 사람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 간의 함수관계다.” 그러니 개인의 노력 여부나 천성을 문제삼는 것보다, 작은 행동(의 연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일이 더 생산적인 일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제안이다.

‘나’를 파악해서 습관-시스템을 구축하기

이 책은 여러 인지과학과 행동과학적 근거를 다양하게 예로 들면서도 심리학적 이론보다는 실용적인 매뉴얼에 가깝다. 그동안의 심리학이나 교육학이 대체로 외부의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학생 모델을 중심으로 잔소리와 칭찬, 체벌과 보상을 더욱 정교하게 제공하는 이론에 가까웠다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외부 자극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행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자기를 알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목표한 어떤 결과물 자체가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습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곧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던가, 너 자신을 알라는 동서양의 격언들이 하나 같이 말하는 것도 이와 같다. 자기를 알 때 힘이 나온다. 원래 이 책의 영문판 제목은 “Atomic(원자의) Habits(습관)”이다. 원자처럼 가장 작은 단위라는 의미와 원자력에서 핵에너지처럼 막대한 힘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모두 담겨 있다. 자기 안에 잠재된 거대한 힘을 작은 행동이 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파악하고 설득하는 반복적인 과정에서 비로소 ‘나’가 탄생하고 움직인다. 습관은 그렇게 ‘나’를 만들어낸다. ❶

김건형 - —————
198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8년 문학동네신인상을 수상하며 평론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현재 계간 《문학동네》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제2회 도서관의 날을 축하합니다 ‘최근 3년간 도서관 관련 인기 도서 분석’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를 도서관 주간으로 정하고 4월 12일 ‘도서관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 확산과 이용 촉진을 위해 제정된 날로 올해 2회를 맞이했다. 두 돌을 맞는 도서관의 날을 축하하며 최근 3년간 도서관과 관련한 도서 중 어떤 도서가 인기를 얻었는지 살펴보았다.

정리 이혜민 자료제공 각 출판사 데이터 출처 도서관 정보나루(www.data4library.kr)

분석 기간 2021.1.1~2021.12.31. / 2022.1.1~2022.12.31. / 2023.1.1~2023.12.31.(검색 조건: 아동 도서를 제외한 일반 도서 대상)

2021



《사서의 일: 작은도서관의 광활한 우주를 탐험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안내서》 양지윤 지음 | 책과아름 | 2021

발간 당시 작은 도서관의 10년 차 계약직 사서였던 저자의 나 홀로 도서관 운영기다. 무수한 책과 사람과 도서관에 대한 에피소드로 채워져 있다. 작은 도서관이기에 가능한 것들을 찾아 도전하고, 흔들리고 주저하는 일상 속에서 ‘도서관의 진짜 의미’를 되물으며 조금씩 성장해 가는 한 사서의 성장 일기다.

1

1,671회

《사서의 일: 작은도서관의 광활한 우주를 탐험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안내서》 양지윤 지음 | 책과아름 | 2021

913회

《나는 도서관 사서입니다》 홍은자 지음 | 푸른들녘 | 2021

688회

《도서관 여행하는 법: 얇은 세계에 진입하는 모두를 위한 응원과 환대의 시스템》 임윤희 지음 | 유유 | 2019

0 500 1,000 1,500 2,000

2022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북유럽 도서관과 복지국가의 비밀》 윤송현 지음 | 학교도서관저널 | 2022

도서관 활동가이자 시민운동가인 저자가 10여 차례에 걸쳐 북유럽 80여 곳의 도서관 현장을 답사해 완성한 북유럽 도서관 견문록이다. 북유럽 도서관 이야기를 사회 전체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며 도서관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1

1,368회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북유럽 도서관과 복지국가의 비밀》 윤송현 지음 | 학교도서관저널 | 2022

1,165회

《나는 도서관 사서입니다》 홍은자 지음 | 푸른들녘 | 2021

99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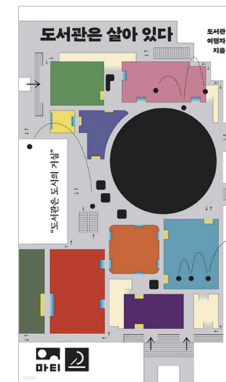
《사서의 일: 작은도서관의 광활한 우주를 탐험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안내서》 양지윤 지음 | 책과아름 | 2021

0 500 1,000 1,500 2,000

살아 있는 존재,
도서관

최근 3년간 도서관 관련 인기 도서로는 사서와 관련된 책들이 주로 순위에 올랐다. 더불어 도서관 자체에 주목하는 도서들도 순위에 속하며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했다. 소개된 책들의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도서관이 살아 있다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는 유기체로서 도서관은 언제나 이용자의 곁에 존재해 왔다. 수없이 쏟아지는 지식 속에서 중심을 잡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도서관에 고마움을 표한다. ❾

2023



《도서관은 살아 있다》 도서관여행자 지음 | 마티 | 2022

미국에서 공공도서관 사서로 일했던 전직 사서가 도서관에서 일하며 가졌던 생각과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또한 세계 곳곳의 도서관을 여행하며 느낀 감상과 도서관을 향한 무한 애정이 담긴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다. 도서관이 이용자와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공간임을 느끼게 해준다.

1

2,028회

《도서관은 살아 있다》 도서관여행자 지음 | 마티 | 2022

1,688회

《사서, 고생: 책보다 사람을 좋아해야 하는 일》 김선영 지음 | 문학수첩 | 2023

818회

《사서 일기》 엘리 모건 지음 | 엄일녀 옮김 | 문학동네 | 2023

0 500 1,000 1,500 2,000 2,500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지혜, 종교와 신화 속으로

한국십진분류표의 ‘종교(200)’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비교적 친하지 않은 주류(主類, main class)이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치던 바로 여기에,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지혜가 꽃혀 있다.

자, 천천히 이 글을 따라오시라. 낯설기만 했던 200번대 서가에 자주 들르게 될 것이다.

글 박순영(독서 컨설턴트) 참고도서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박순영 지음, 미래문화사, 2023)



문사철(文史哲)의 종합판, ‘종교(200)’

‘종교(200)’는 종교와 신화, 오컬트(Occult, 주술적 신비주의)를 포함한다. 이들은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하여 자연의 현상과 질서를 설명하고 자연 너머의 무엇을 숭배하면서 탄생했다. 종교(宗教)는 ‘가장 으뜸 된 가르침’을 의미하고, 신화(神話)는 ‘인간 이상의 존재인 신(神)에 관한 이야기’이다. 종교와 신화는 인류가 가장 먼저 손에 쥔 삶의 태도이며 생존의 지혜였으며, 이후 수많은 철학자들의 탐구 대상이었다. 종교와 신화는 현재까지 인간이 소유한 것 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지며, 현대인에게 수많은 이야기와 상징, 서사의 원형(元型)을 제공하고 있다.

문(文)으로서의 ‘종교(200)’: 소설, 영화, 애니메이션...

‘종교(200)’는 지금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의 텃밭이나 다름없다. 판타지적 세계관에 다양한 인간 군상을 등장시키며 그들의 욕망과 갈등, 논쟁을 보여주는데, 일종의 우화(寓話)처럼 현실 세계의 우리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미국의 종교학자인 조셉 캠벨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1949)에서 세계의 각종 신화를 비교하여 영웅 서사의 구조를 분석했다. 9단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영웅(모험) 서사〉

- ① 평범한 주인공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 ②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모험을 떠날 것을 권유받는다.
- ③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며 모험을 거부하지만, 조만간 그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깨닫고 수락하게 된다.
- ④ 모험길에 오르자마자 햇병아리 모험가가 위험에 처하는 결정적 순간에 조력자와 스승을 만난다.
- ⑤ 이후 미약하지만 자신의 힘만으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 낸다.
- ⑥ 여러 시험과 발전, 협력자와 적대자를 만나게 되고
- ⑦ 적의 소굴로 들어가 최고의 시련을 겪는데
- ⑧ 끝내 이겨내고 보상을 받는다.
- ⑨ 평범한 일상으로 귀환하여 자유를 얻는다.

현대 모험영화나 영웅소설에서 이 서사를 참고하지 않은 작품은 드물 것이다. 영화 〈스타워즈〉나 〈반지의 제왕〉 3부작, 〈호빗〉 3부작은 이 구조에 대부분 들어맞는다. 영화는 촬영 기술이나 컴퓨터그래픽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표현해 낼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표현력이 향상된다. 영화는 신화가 묘사하는 스케일을 그 이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오컬트 장르 역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으며, 특히 마블(Marvel) 시리즈의 통합된 세계관은 종교, 신화, 오컬트를 대거 차용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 라이엇게임즈)’를 포함하여 독자적인 세계관이 있는 게임 대부분이 신화나 설화, 전설 등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200)’ 서가에 친숙해진다면 신화나 오컬트를 차용한 콘텐츠를 이용할 때 지금보다 훨씬 재미있고 질 높은 감상을 하게 될 것이다.

사(史)로서의 '종교(200)': 한국사, 세계사, 현대사...

종교와 신화를 빼놓고 인류와 민족의 역사를 말할 수 있을까. 역사 이전에 종교와 신화가 존재했으니 적어도 인간 역사의 시작은 분명 종교와 신화로부터 가능했으리라. 종교와 신화는 역사로 접근하는 지름길이다. 태초에 관한 이야기, 인간 탄생 설화, 민족의 시조와 영웅을 노래하는 전설 등 종교와 신화는 우주만큼 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가장 긴 이야기를 담고 있다. '홍익인간(弘益人間,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하라)'이라는 단군신화의 건국이념은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이기도 하다(「교육기본법」 제2조). 민족 신화에서 종교가 발생하기도 하고, 각 민족의 신화와 종교가 충돌하여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종교와 신화는 합쳐지고 변용되고 갈라져서 인류 역사에 다양한 파열음을 냈다.

유럽은 종교전쟁의 역사로 설명된다. 굵직한 전쟁만 헤아려도 십자군전쟁(1095~1291), 네덜란드 독립전쟁(1568~1648), 30년 전쟁(1618~1648), 영국 내전(1642~1651) 등 오랜 시간 끊임없는 종교 분쟁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으나 종교적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말하긴 어렵다.

철(哲)로서의 '종교(200)': 종교학, 철학, 사회학...

학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종교학의 시조로 보통 독일의 신학자 프리드리히 에른스트 다니엘 슈라이어마허(Friedrich Ernst Daniel Schleiermacher, 1768~1834)나 프레드리히 막스 뮐러(Friedrich Max Müller, 1823~1900)를 꼽는다. 신앙으로서의 종교는 역사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만 학문으로서의 종교가 성립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임은 분명하다. 종교학은 '가장 오래된 것을 다루는 신생 학문'이라 할 수 있겠다. 종교학이 신생 학문이다 보니 근현대의 저작들이 대다수이다. 근대 혹은 근대 이후의 경제나 사회를 다루기 때문에 현대와도 매우 밀접한 주제 의식을 담고 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 공감할 여지가 많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사회과학자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1920)은 프로테스탄트의 종교적 세계관이 초기 자본주의 체제 성립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저술이다. 라인홀드 니부어(Reinhold Niebuhr, 1892~1971)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1932)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서, 그리고 이상주의와 냉소주의 사이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 개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으나 집단이 되면 조직원리에 따라 비도덕적일 수 있다는 통찰을 보여준다. 종교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더욱 냉철한 이성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종교와 신화는 역사뿐 아니라 사회적 관습과 건축양식, 상징, 음식 등 다양한 문화 양식에서 나타난다. 만약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그 나라의 종교, 신화와 관련한 책 한 권쯤은 훑어보고 가실 것을 추천해 드린다. ❶

박순영 •

2016년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인 '독서토론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을 만들고 독서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대학교·도서관 등에서 독서 동아리 멘토 및 토론, 독서, 인문학 등의 강연을 하고 있다.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4 국내외 도서관 소식

59 한 장의 감성



함께 나누다

AI(인공지능) 리터러시 아카데미
‘처음 배우는 AI의 세계’ 교육 시작



‘처음 배우는 AI의 세계’ 포스터

국립중앙도서관은 4월 2일(화)부터 4월 18일(목)까지(매주 화, 목) AI 리터러시 아카데미 ‘처음 배우는 AI의 세계’를 진행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AI 크리에이터 양성 초급반으로 생성형 AI를 처음으로 접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교육이다. 참가인원은 총 30명이며, 기초 수준의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고 전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생성형 AI의 이해, 종류별 특징, AI 활용 작문·작곡·이미지 생성 등 개괄적인 내용부터 실질적인 창작 실습 활동까지 배워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선별된 청년 디지털 봉사단 ‘잇(IT)다’가 교육생들의 실습을 지원한다.

문의 지식정보서비스과 02-3483-8847

2024년 ‘월간 인문학을 만나다’
1, 2회차 강연 ‘관동별곡과 고전시가’ 진행



‘월간 인문학을 만나다-관동별곡과 고전시가’ 포스터

국립중앙도서관은 2024년 한 해 동안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인 ‘월간 인문학을 만나다’를 진행한다. ‘월간 인문학을 만나다’는 문학, 미술,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으로 연간 12회 운영 계획이다.

3월 29일(금), 4월 5일(금)에 진행되는 1, 2회 강연은 한국시가 문학 해설연구원의 이정옥 원장이 ‘관동별곡과 고전시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더불어 관동별곡 속 주요 장소를 미디어아트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해설이 있는 K-컬처’ 관람이 이어진다. 이번 강연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인문학 강연과 연계하여 강원관광재단에서 준비한 ‘관동별곡 테마 인문학 여행’ 참가자들도 함께한다.

‘월간 인문학을 만나다’ 강연 참여 신청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 > 신청·참여 > 교육/문화프로그램 > 강연/세미나에서 할 수 있다.

문의 국제교류홍보팀 02-590-0737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제19호 발간
‘본문검색 서비스 현황 및 발전방안’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제19호

국립중앙도서관은 ‘본문검색 서비스 현황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제19호를 발간했다. 본문검색 서비스는 도서관의 제목이나 저자 등의 정보를 알지 못해도 검색 키워드로 본문의 내용을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21년 시범 구축한 본문검색 서비스의 현황과 적용 기술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본문검색 서비스에서 검색이 가능한 대상 자료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일반도서 8만 8,000건, 학술지 및 학위논문 등 100만 건이다. 국립중앙도서관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검색 키워드를 강조하는 하이라이팅 기능, 한자 독음 변환 기능 등 다양한 기술이 사용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는 누리집(www.nl.go.kr) > 도서관 소개 > 발간 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메뉴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문의 기획총괄과 02-590-0578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청소년 기자단
「부커부커」 발대식 개최



‘부커부커’ 포스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3월 16일(토), 도서관 강당에서 제12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청소년 기자단 「부커부커」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한 해 동안 기자로 활동할 20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했으며, 기자단 위촉장 및 명함 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개발한 VR 독서토론 콘텐츠 체험, 기사 작성법 교육 등이 진행되었다. 새로 선발된 청소년 기자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취재하거나, 청소년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등의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게 된다.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 02-3413-4856

2024년 도서관의 날·도서관 주간
프로그램 진행



4.11.(목)

국제회의 “도서관과 리터러시, 미래를 이끄는 힘”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14:00 ~ 17:30

4.12.(금)

2024 미래도서관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10:00 ~ 13:30

2024 도서관의 날 기념식 *온라인 생중계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16:00 ~ 17:00

최은영 『밝은 밤』 작창공연과 작가대담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18:00 ~ 20:00

4.11.(목) ~ 4.12.(금)

도서관 소풍 “요즘 도서관 뭐함?”
국립중앙도서관 야외마당 11:00 ~ 18:00

4.12.(금) ~ 4.18.(목)

[우리동네 도서관 프로젝트] 찾아가는 작가 강연
전국 도서관 프로그램별 확인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도서관위원회는 2024년 도서관의 날·도서관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2024 도서관의 날·도서관 주간 공식 주제 공모전’ 당선작인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법정기념일인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국제회의, 미래도서관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 문화예술 융복합 공연 및 대담(최은영 작가 《밝은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4월 11일(목)부터 12일(금)까지 이틀간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다(오프라인 진행, 각 프로그램별로 150명 사전 신청 후 참석).

국립중앙도서관 야외마당에서는 ‘도서관 소풍: 요즘 도서관 뭐함?’이라는 내용으로 소풍존(야외 독서공간), 홍보존, 체험존으로 구성된 홍보·체험부스를 운영하며, 서초구 문화벨트 조성(책있는거리) 축제와 연계·협업하여 체험부스, 야외서가, 거리 공연 등 이벤트가 펼쳐진다.

또한 4월 12일(금) 도서관의 날을 맞아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이 개최된다. 도서관계 주요 인사 및 각 계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기념식에서는 도서관 육성 발전 유공자 포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단체 2개, 개인 19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3년 실적 우수기관 시상(국가도서관위원장상/단체 10개), 미래도서관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 시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2개 팀) 등이 진행되며, 도서관의 날 선언문 영상 상영 및 축하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2024년 도서관의 날, 도서관 주간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지역별·관종별 도서관과의 협업 프로그램으로 ‘우리동네 도서관 프로젝트’ 공모를 추진하여 37개 도서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37개 도서관 중 30개 도서관은 ‘찾아가는 작가 강연’을, 7개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야외마당의 ‘우리 도서관 홍보부스’를 지원받는다.

사전 공모로 선정된 도서관과 작가 강연 정보, 프로그램 참여 신청 등 자세한 정보는 2024 도서관의 날 공식 누리집(www.libraryda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운영사무국

T.070-8826-5206 E.412libraryday@naver.com

2024 도서관의 날·도서관 주간 프로그램 참가 신청 안내

- 일시

2024년 4월 11일(목)~4월 12일(금)
- 장소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참석 대상

도서관계 및 관심 있는 국민 등 프로그램별 150명 내외
- 참가 신청 방법

- 사전 신청 프로그램: 국제회의(4월 11일), 해커톤 대회, 문화예술 융복합 공연 및 대담(4월 12일)
- 신청 기간: 2024년 3월 12일(화)~4월 5일(금)
- 신청 방법: 2024 도서관의 날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도서관의 날 누리집(www.libraryday.kr) > 프로그램 > 참여 신청(구글 폼 작성)
*프로그램별 선착순 150명 마감/오프라인으로 진행

·프로그램 개요	행사명	일시	주요 내용
국제회의		4월 11일(목) 14:00~17:30	‘도서관과 리터러시, 미래를 이끄는 힘’을 주제로 기조 강연, 주제·사례 발표 및 토론
		미래도서관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 대회 4월 12일(금) 10:00~13:00	미래도서관 정책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해커톤 형식의 경진 대회(장관상 2점, 국립중앙도서관장상 4점 및 포상금 수여)
문화예술 융복합 공연 및 대담		4월 12일(금) 18:00~20:00	문화예술 융복합 공연, 작창(作唱) 공연과 작가 대담 - 최은영 《밝은밤》 작창 공연 및 작가 대담 - 최은영 작가, 정은혜 소리꾼 출연

우리동네 도서관 프로젝트

- 일시

2024년 4월 11일(목)~4월 18일(목)
- 장소

선정된 도서관 내(※홍보부스는 국립중앙도서관 야외마당)
- 추진 내용

요건	유형	찾아가는 작가 강연	우리 도서관 홍보부스
		지역별·관종별 도서관이 요청한 주제에 맞는 작가 섭외 및 매칭을 통한 작가 강연 지원	국립중앙도서관 야외마당에서 운영되는 홍보 부스에 도서관 홍보 기획 제공
추진 방향			
진행 일정		2024년 4월 12~18일 중 하루	2024년 4월 11~12일(양일 진행)
장소		선정된 도서관 내	국립중앙도서관 야외마당
선정		30개 관	7개 관
협업 운영사		· 신청 분야 저자 또는 인플루언서 작가 섭외 및 매칭(작가는 협의 후 확정) · 강연료(교통비 포함) 지급	야외 홍보부스 제작 및 현장 운영
		선정된 도서관	공간 제공, 프로그램 홍보,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백서 제작용)
			홍보 콘텐츠 및 홍보 유인물 제공(홍보 콘텐츠는 협의 후 확정)

제주 서귀포시 도서관 4곳,
‘시민 북큐레이션’ 프로그램 진행



(출처: 서귀포시청)

올해 12월까지 제주 서귀포시는 중앙도서관, 동부도서관, 안덕산방도서관, 표선도서관에서 ‘시민 북큐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민 북큐레이션’은 시민과 도서관의 협업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북큐레이션 공간에 사서가 아닌 시민이 추천한 도서를 전시할 예정이다. 이에 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이 제시한 주제와 관련해 시민이 추천한 도서를 전시한다. 또한 동부도서관은 반납 도서 중 이용자의 추천을 받은 도서와 서평지를 함께 전시하며, 안덕산방도서관과 표선도서관은 책방과 시민을 연계한 ‘모두의 서재’를 각각 운영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립도서관
‘향토자료실’ 개소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청)

3월 11일(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립도서관(이하 세종시립도서관)은 향토자료실 개소식을 갖고 자료실의 문을 열었다. 세종시립도서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지역 향토 자료 기증 운동’을 펼친 결과 세종시의 역사와 문화, 인물 등에 관한 향토 자료와 책들을 기증받을 수 있었다. 2022년 3월에는 역사문화 학자인 김갑동 대전대학교 교수가 오랜 기간 수집하거나 본인이 쓴 지역 역사 자료 및 지방사 연구 자료 수천 권을 기증하였다. 도서관은 내부 규정에 따라 기증된 자료의 보존·관리 상태와 이용 가치 등을 기준으로 700여 권을 추려 도서관 향토 자료로 등록했다. 등록된 향토 자료는 학술 조사와 연구 활동 등에 활용되며 다양한 기획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에게도 선보일 예정이다.

동대문구립도서관,
도서관 활력지수(L-ESG) 선제적 도입



(출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립도서관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도서관 활력지수(L-ESG)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도서관 활력지수란 ESG 기반의 도서관 지수로, 도서관 인프라의 친환경 대응력, 디지털 전환 수준, 보편적 문화 향유 서비스 제공 역량 등을 측정한다. 동대문구립도서관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구민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미래 도서관’이라는 비전을 갖고 도서관의 서비스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그린(Green) 도서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직원 문화 조성, 구민 참여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정보 서비스 제공,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시설 관리 등을 시행한다.

부천시, ‘책 읽는 도시’ 경쟁력 제고 위해
도서관 공간 활용 사업 추진



(출처: 부천시청)

부천시가 ‘책 읽는 도시 부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서관 특성화 공간 운영과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북+(더하기) 파워 프로젝트’, ‘2024년 도서관 주간 행사’, ‘특성화 공간 운영’, ‘독서문화 진흥사업’, ‘인프라 확대’ 등이 있다. ‘북+(더하기) 파워 프로젝트’에서는 부천시와 GS파워(주)가 협약을 맺고 시민이 읽은 책의 양을 도서 구입비로 환산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리모델링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공간, 메이커 공방, 책문화센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개포도서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개관 40년 만에 휴관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개포도서관)

1984년 개관한 개포도서관이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재건축을 앞두고 지난 3월 3일(일) 휴관에 들어갔다. 개포도서관은 이번 재건축을 통해 개관 40년 만에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 3층~지하 2층은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휴관에 들어간 개포도서관은 4월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연수원 연수지원센터로 임시 이전하며, 이곳에서 당분간 독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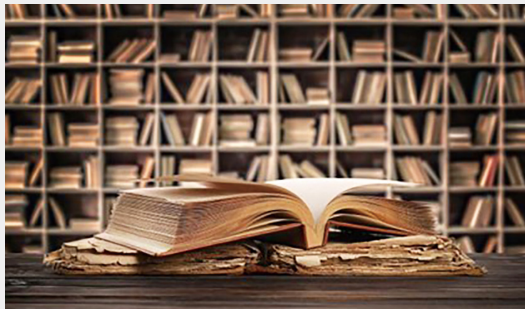
2024 어린이 책의 해
추진단 출범



(출처: 어린이 책의 해 추진단)

‘2024 어린이 책의 해 추진단’(이하 추진단) 출범식이 3월 12일(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열렸다. 출범식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어린이도서연구회 등 도서관, 서점, 작가, 독서 분야 민간단체 11개가 참여했다. 추진단은 올해를 ‘어린이 책의 해’로 선포하고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4월 중 누리집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도서관을 모집할 예정이며, 5월부터는 누리집에서 사연 신청도 받는다. 또 ‘한국동화 100년, 우리동화 100선’이라는 주제로 좋은 동화 100선을 추려 전국 도서관 및 어린이 관련 기관에서 순회 전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추진단은 ‘책 읽어주기운동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어린이 책 생태계 포럼’, ‘2024 어린이책 경향 발표 및 전시’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네스코, 유네스코 직지상 후보 접수 시작



(출처: 유네스코)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가 제10회 유네스코 직지상(UNESCO/Jikji Memory of the World Prize) 후보 접수를 시작했다. 유네스코 직지상은 기록유산의 보존과 이용에 중대하게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에 격년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세계기록유산사업(Memory of the World Programme)의 중요한 상징이 된 이 상은 우리 정부가 후원하며, 수상자에게는 3만 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회원국들은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의 자문을 거쳐 2024년 4월 30일까지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추천서를 작성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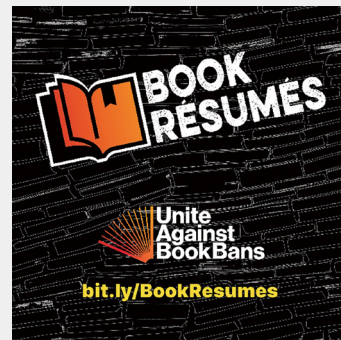
핀란드국립도서관, 웹 아카이브에 모터스포츠 테마 웹 컬렉션 신설



©shutterstock

핀란드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Finland)은 핀란드 웹 아카이브에 핀란드 모터스포츠 문화를 주제로 하는 웹 컬렉션을 신규 추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컬렉션은 2023년까지의 자동차, 항공, 오토바이, 스노모빌, 보트 스포츠의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료는 대중과의 협업을 통해 약 1,500개 도메인에서 수집됐다. 웹 컬렉션 자료는 핀란드 전역의 법정 납본 도서관, 의회도서관, 국립시청각연구소(National Audiovisual Institute)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미국 도서검열반대연합, 도서 요약서 무료로 공개



(출처: 미국도서관협회)

미국 도서검열반대연합(Unite Against Book Bans)은 도서 검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자 출판계와 협력하여 도서 요약서(Book Résumé) 컬렉션을 구축하고 공식 누리집(bookresumes.uniteagainstbookbans.org)에서 무료로 공개했다. 요약서에는 개요, 전문 저널 리뷰, 수상 내역, 찬사 등을 포함해 도서의 중요성과 교육적 가치가 정리되어 있다. PDF 형태로 작성되어 출판사, 사서, 학교도서관저널(School Library Journal) 등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검열 대상이 된 도서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도서검열반대연합은 출판계와의 협력을 통한 정기적인 도서 요약서 확대 및 갱신 계획을 밝혔다.



국외 도서관 소식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웹진 월드라이브러리
(librarian.nl.go.kr)에서 확인하세요.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인생에서 모든 불행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다.
- 윌리엄 서머셋 뫼어